



# 격주로X아마도Lab n개의 모닥불 - 관람자 심층 인터뷰 <<누아르 마운틴>> 관람자 ‘친구’

## 목차

### 1부

#### 1. 참여자 소개

#### 2. 과거의 전시 관람 경험

- 1) 건축적 맥락과 전시
- 2) 전시 관람 미술 애호의 궤적
- 3) 전시 관람의 과정과 환경 - 빌 비올라(부산시립미술관)
- 4) 빌 비올라 전을 6-7시간 관람하면서 느낀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
- 5) 몸과 미적 경험
- 6) '아쉬워서 다시 한 번' - 최만린 미술관과 오종 작가의 작품
- 7) '좋음'의 몸 감각 드로잉
- 8) 작업마다 달리 기대하는 다양한 미적 경험들

### 2부

#### 3.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 장종완 개인전 <<누아르 마운틴>>

### 3부

#### 4. 아마도예술공간 전시 관람 경험

- 1) 궤적과 본 것 그리고 ?!들
- 2) 다양한 관람 양상들 중 하나, '내가 갖지 못한 위트'
- 3) 전시의 생애와 접점, 그리고 '알아봄'
- 4) 결과 이면을 보여주는 <문어둔 편지>와 이전의 작품

#### 5. 마무리

## 1부

### 1.참여자 소개

친구

00:27

예전에 장종원 작가 (전시는) 아라리오 뮤지엄이랑 갤러리에서... 아라리오 이사 가기 전에(봤어요.)

감각적으로 딱 봤을 때 몰라도 좋은 작가가 있고, 모르는데 뭐지 약간 어리둥절한 작가가 있는데, 약간 그런 작가였어 가지고 이번에 좀(보려고 왔어요.)

—씨

01:07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와 격주로 소개 중략)

—씨

09:40

네 동의서 한 부는 나중에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총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전시를 보시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어떤 관람 성향이나 관람의 어떤 배경 같은 것을 조금 같이 워밍업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전에 보셨던 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부로 여기 전시를 보시고 그다음에 3부는 그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호칭으로 해도 좋을지 가명 같은 거 예술 별칭이나 그런 걸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친구라고...) 친구 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님의 평소 관람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친구

11:12

저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좀 적은 시간에 관람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보면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좋거나 이러면 여러 번 가서 다양한 시간이나 날씨가 이럴 때,

다양하게 가는 걸 좋아하고. 처음에는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이 (위주였지만) 어떤 공간... 이렇게 공간과의 어울림이라든가 그런 게 나중에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공간이 되게 적절하다고, 이 작품이랑 너무 이 공간이랑 잘 맞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맞는다는 것도 좋고 그 맥락이 되게 맞을 때 되게 좋다고 느껴요.

친구

12:37

그 정도? 근데 이제 요즘은 같은 미술 작품이라도 이것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보는 게 좋고, 연결되는 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었다면, 그때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시장 가치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유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기 위한 어떤 장소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게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걸 매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면 괜찮을 거 같고. 그 대신 좀 복잡한 걸 피해서 그런 시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씨

13:49

네, 그런 유입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까지도 다니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기 때문에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셨나 보네요. 예를 들면은 프리즈 기간이라든가.

친구

14:08

네, 아니면 한가람 미술관 이런 경우에 좀 대중성이 있고. 도슨트가 좀 대중성이 있는 도슨트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약간 그런 느낌? 한강의 작품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을 타서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이, 이게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할 사람들이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엄청 몰려들 때 약간..ㅎㅎ 어느 정도까지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 2. 과거의 전시 관람 경험

### 1) 건축적 맥락과 전시

—씨

14:51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전시를 굉장히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이 깊었던 전시 하나를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 ㅎㅎ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 님에게 굉장히 강한 미적 경험으로 지금까지도 몸 안에 남아 있다라고 느껴지는?

친구

15:37

아라리오 뮤지엄 스페이스 처음에 개관했을 때, 화이트 큐브가 아니고 보통 건물 안에 작품이 있을 때, 건물도 느끼고 작품도 느끼면서 이게 두 가지가 있구나. 전시를 볼 때 그런 거랑 건물이, 그때 좀... 이렇게 충격은 아니었지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 흐릴 때, 맑을 때, 더울 때, 뭐 이렇게 스산할 때 이럴 때 자주 가면서 변화하는 창이나 그림자나 이런 변화하는 걸 같이 느끼면서 '아 이게 되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좋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씨

16:50

한국이 꼭 아니어도 괜찮긴 합니다. 방금 그렇게 충격까지는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관람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공간과 작업의 맥락이 어우러짐에 선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은, 현대 미술 작업 중에 관람자가 몰랐던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전하고 그게 굉장히 강한 감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신거죠.

친구

17:25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이 공간과 이 두 개(전시와 공간)의 층위가 있어서 이거를 한 번 경험할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거고요.

거기(아라리오 뮤지엄)에 리암 길릭의 네온 작품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게 영국에서 맨 처음에 이민국에 설치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 이 건물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설명과 같이) 그 건물이랑 맥락이 너무 닿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라리오 뮤지엄도 좋지만 영국 이민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작품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고 건물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미술에서) 장소 특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장소 특정성이 아니었을까(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옥... 사직단 옆에 **운경고택에서 이완 작가 전시**를 할 때 한옥에 사운드 작업이 있었거든요. 이완 작가 작업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근대화와 관련된 소리들이 이렇게 한옥에서 싹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 장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칠 때의 (한) 정치가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귀에 기차 소리, 전화기 소리, 신문물의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데, 아 이게 되게 이 장소랑 너무 딱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장소 특정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어요. **사회에 대해서 동시대 작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그거 하나가 얘기하는 것과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있는 건물, 어떤 기능성이 있는 건물이란 딱 맞았을 때 더 실감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 건물에서 이렇게 수집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그런 작품들은 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씨

20:09

그리고 그런 걸 그 건물의 현장에서 보셨던 것이죠.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넘어선 건축적인 규모와 신체 사이즈보다 작은 '오브제'에 대한 로버트 모리스의 노트가 생각나는데요. 자기 신체를 넘어선 어떤 규모 안에서 그런 역사성이 주어진 작업의 맥락이 맞아 떨어질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의 그 감각이 친구님께서 보셨던 전시 중에 어느 순간에 가장 강렬했나요?**

친구

21:05

몇 개 없어가지고. **운경고택 그게 좀 되게...** 그리고 이게 **항상 시각적인 게 익숙한데 그건 청각적으로 왔던 게 되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씨

21:18

그러면 그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로 하나로...

친구

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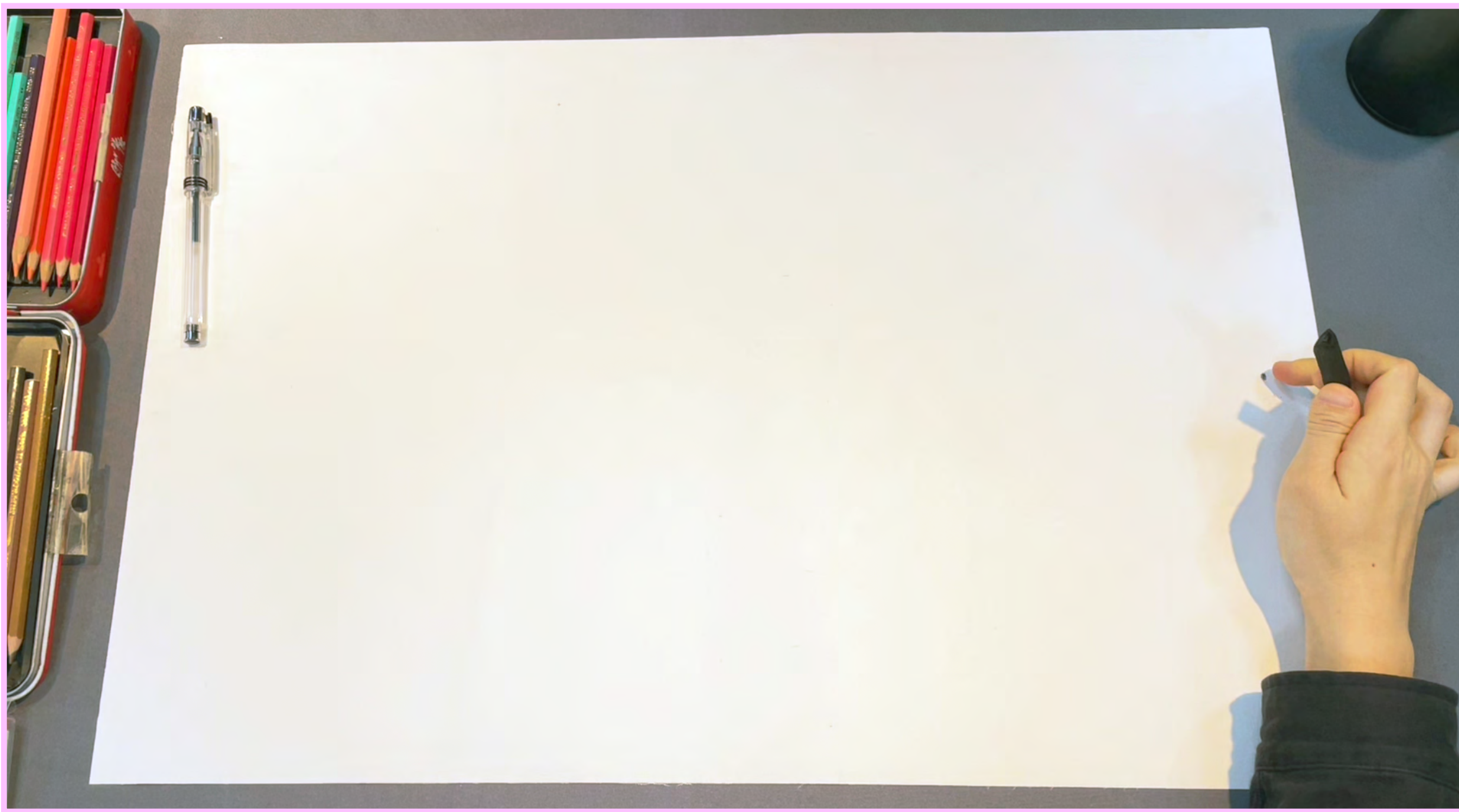
다들 여기서도 이게 좋고 이런 거지 이렇게 하나가 막 크게 압도하고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가깝게 그냥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걸 이래서 좋고.

## 2) 전시 관람과 애호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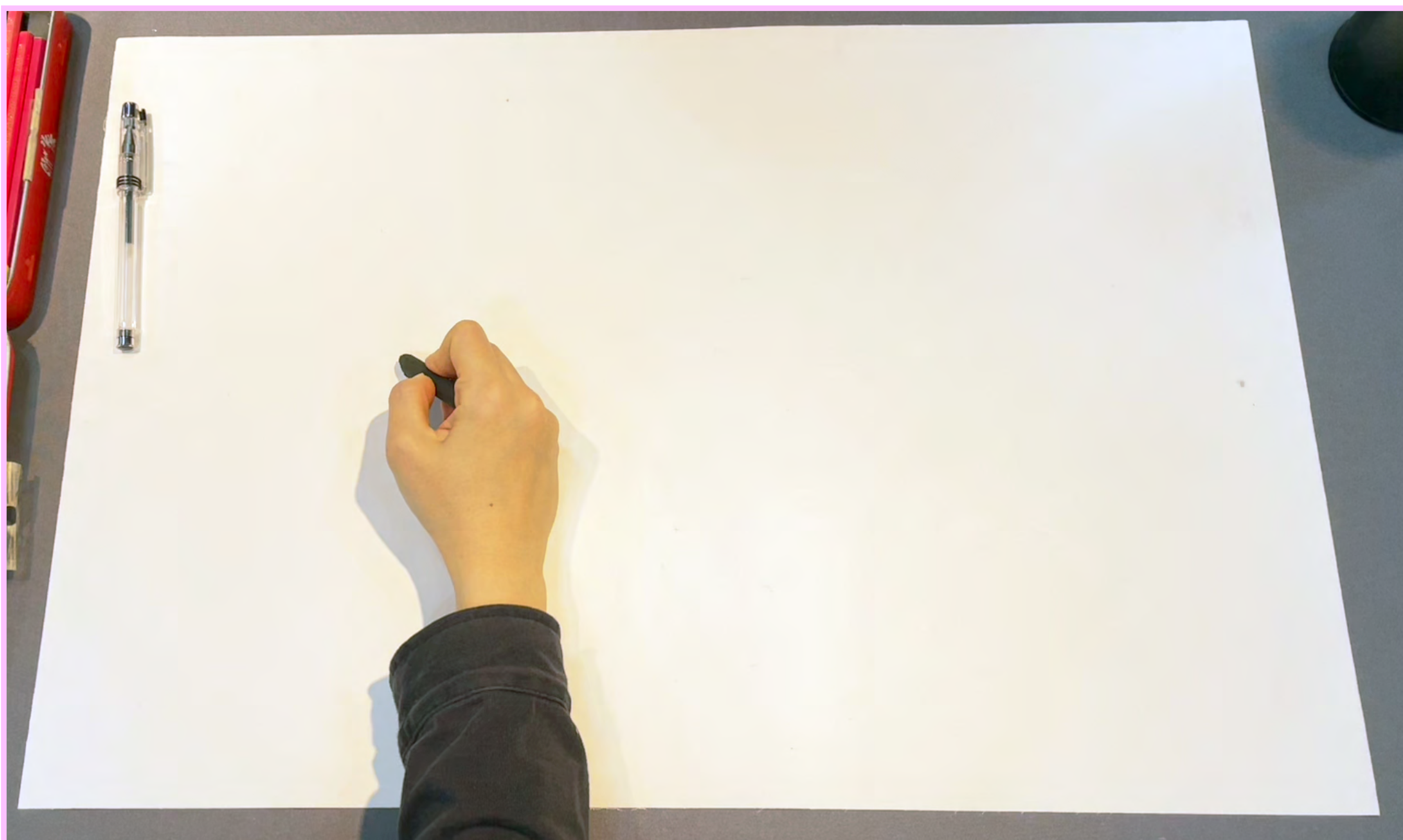
—씨

21:47

좋습니다. 우선 타임라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친구 님의 출생일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라고 했을 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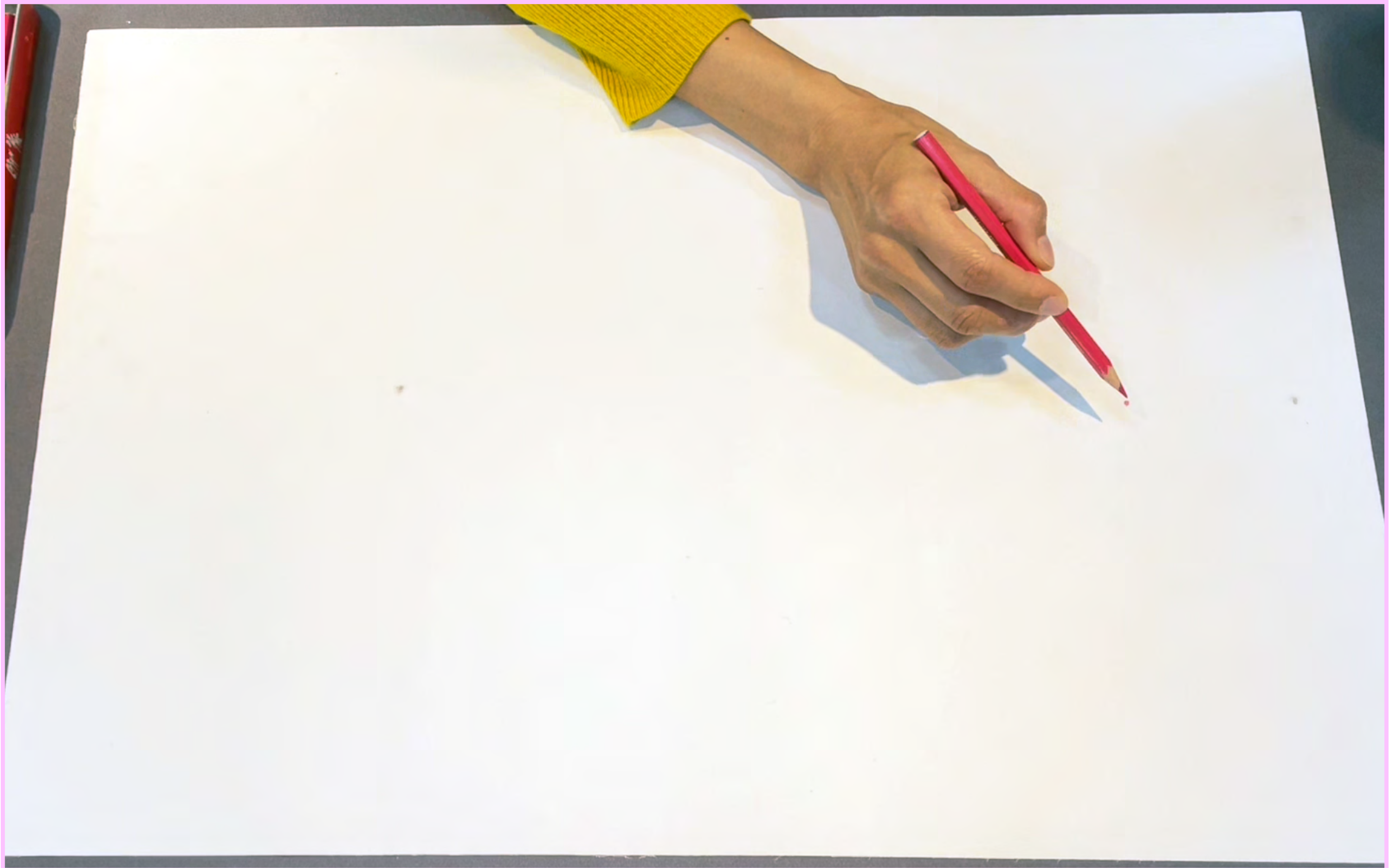
지금 말씀 해 주시는 전시 관람 경험들은 이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표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만 선택해서 그에 대해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려우시거나, 여러 전시들이 비슷한 요인에서 친구 님께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라면 여러 전시를 다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간을 햇수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주관적인 시간의 감각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친구

23:41

처음에는 곽인식 선생님 전시를 10대 때 보고,



그때 처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때 10대 엄마가 '라울 뒤편' 그런 전시를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점으로 찍은 곽인식 선생님 전시 보고 '괜찮다'라고 처음에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좋았던 게, <고려 국보전>이라고



예전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화려하지만, 되게 잘 그렸지만 너무 드러나지는 않아서 되게 좋은?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이면서 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각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전시들을 더 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그 전에는) 그냥 따라서 다닌 거고.

—씨

25:59

고려 국보전은 어느 전시장에서 보셨나요?

친구

26:01

호암갤러리라고 지금은 건물도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 세계로, 궁금해서 막 보러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씨

26:28

어떤 전시들을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친구

26:32

다양하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그냥 되게 많이 알려진 곳들, 폼피두, 오르세, 미국에서는 예전에 게티 하우스 생기기 전에 게티, 보스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스 뮤지엄도 가고. 뉴욕도, 프리릭 컬렉션 이런 거 막 다니고. 모마도 가고. 그때 '센세이션' 전 이런 것도 개최되던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막 보다가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ㅎㅎ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는 뭘 보고 있는가.' ㅎㅎㅎ 그리고 이제 봐서 그다음도 알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다가 한동안 뜸해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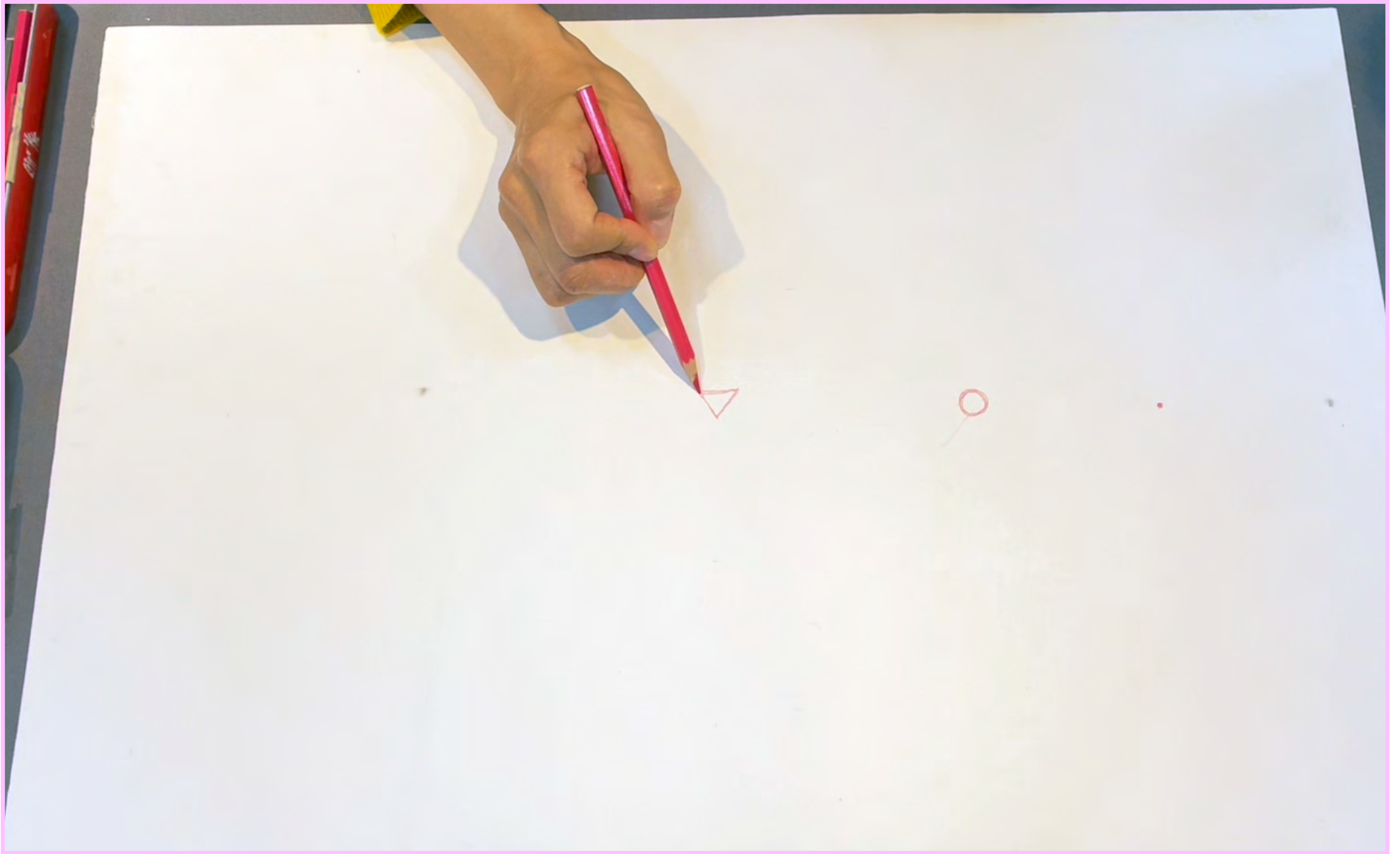
친구

28:08

그래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있거나 전시 얘기 들으면 그냥

보러 다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처럼 열정 같은, 막 이렇게 그런 열정은 좀 식고. 그랬던 것 같고.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4-5년 전.



그러니까 아라리오 뮤지엄을 봤을 때는 좋다고는 했지만 건축 자체를 막 찾아다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건축 얘기들이 4-5년 전부터 많이 들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유명한 건축가 건물들이 생기면서 그게 미술관 이랑도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

29:22

최근에는, 그 사이에 해외 잘 못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COVID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크 로스코 (작품을) 보러 파리에 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근처에 숙소 잡아놓고 가는데, 그게 또 시간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거기 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또 가보고. 다음에 끝날 때쯤 또 한번 가보고. 끝나기 한 20분 전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니까 되게 또 조용하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친구

30:17

그래서 이제 관심이 요즘에는 이 건축과 미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유명한 미술관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 봐야지',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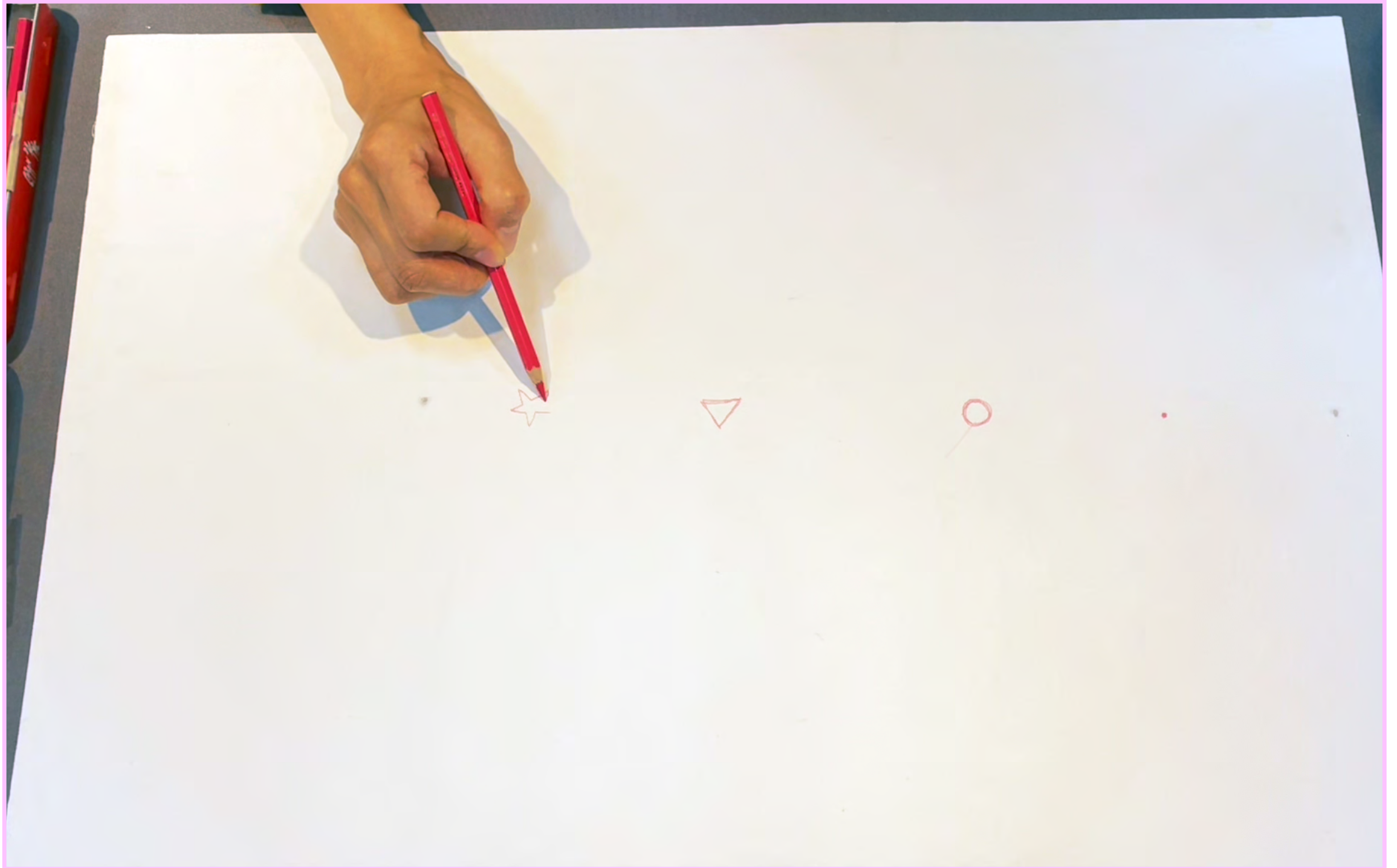
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거 사람들 없을 때 가서 그냥 한두 개 보고. 그렇게 마음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씨

30:55

마크 로스코 전시를 보신 때가 몇 년도였나요?

(친구: 이게 올해죠. 올해 3월.)



친구

31:05

올해(2024년) 봤던 거 중에는... 올해 봤던 거 중에는 그게 좋았어요. 호암 미술관에서 했던 불화전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여성 중심으로, 여성이 어떻게 도상에 나타나고, 어떤 여성이 그렸고, 약간 같은 건데도 좀 다르게 (구성한 전시였어요). 그것도 한 세 번, 네 번 갔던 것 같아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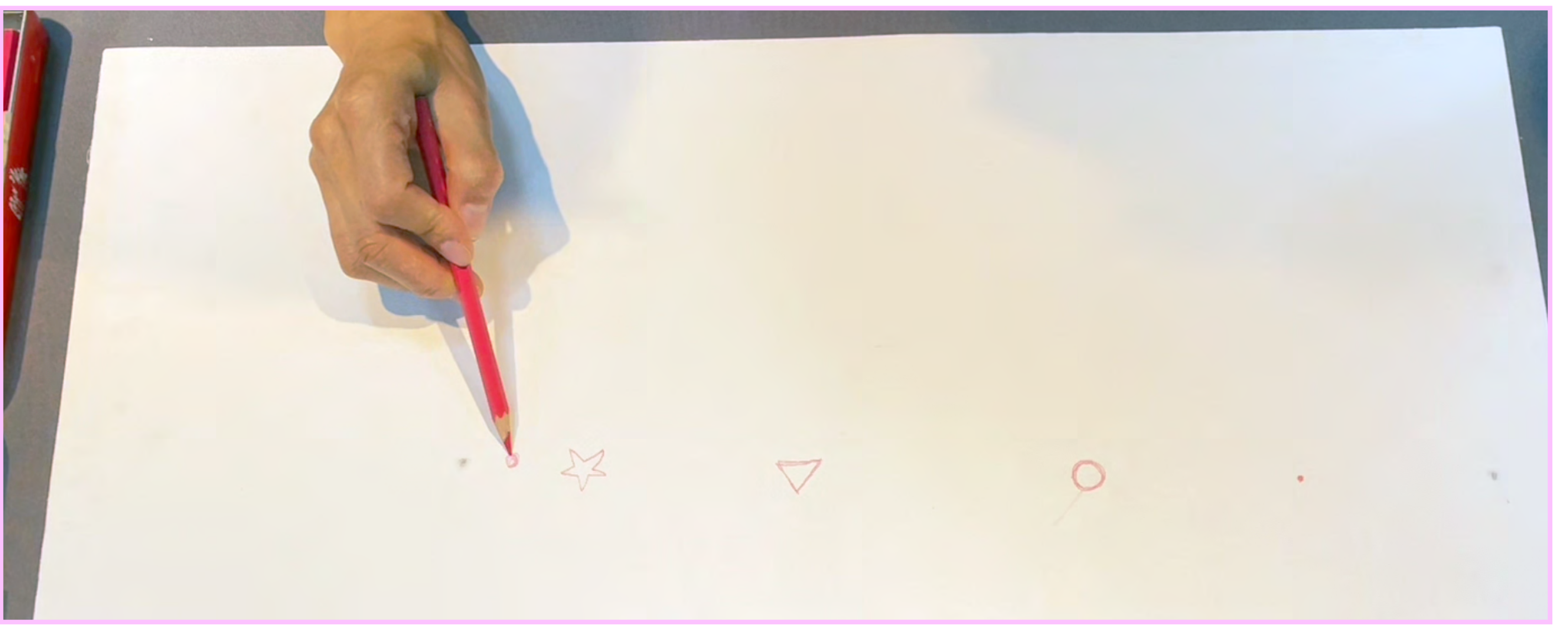
31:44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완 작가님 전시회에 같이 있었던 소리 작업도 올해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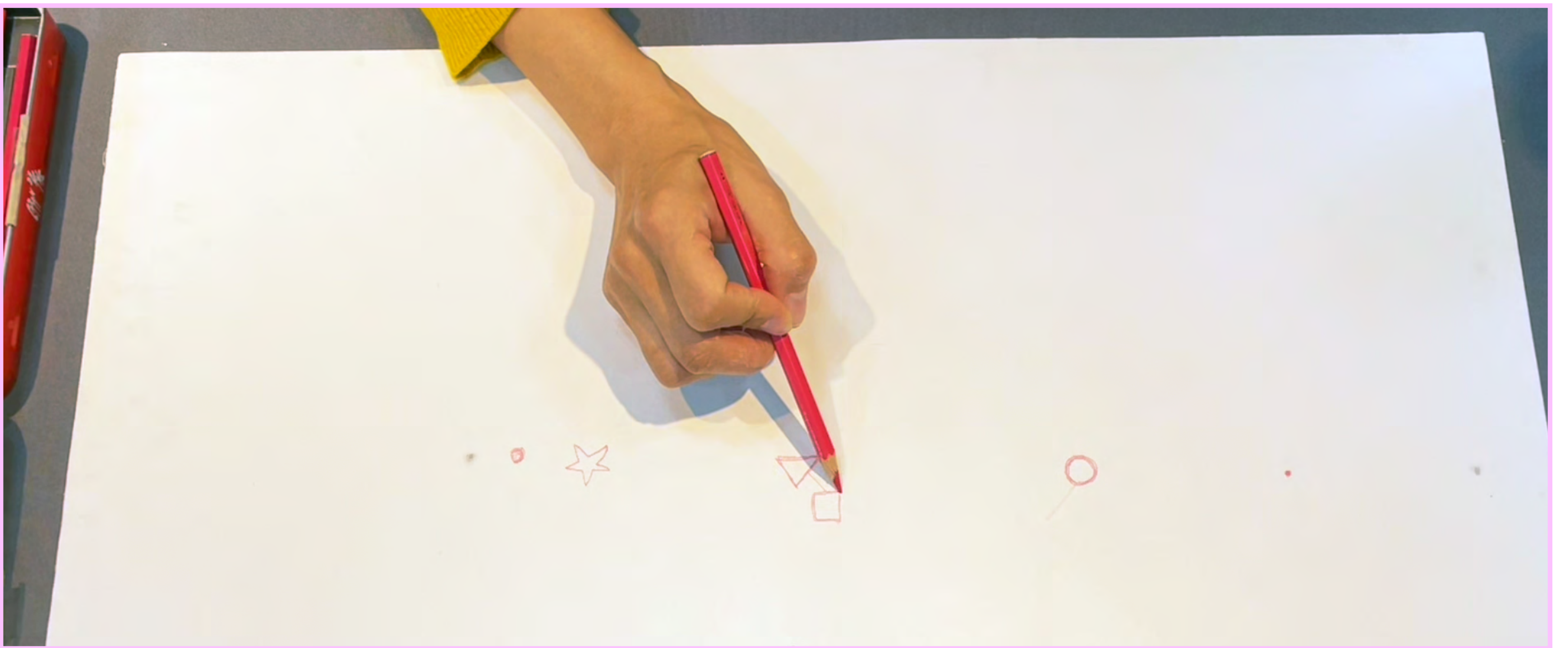
친구

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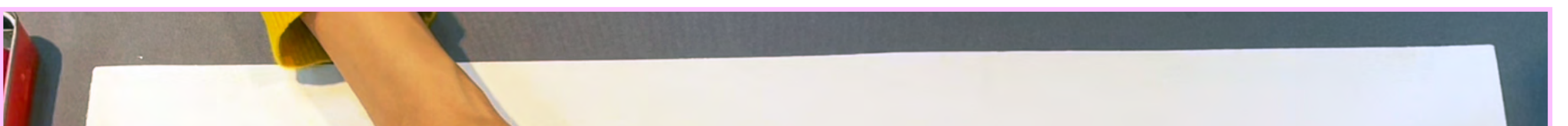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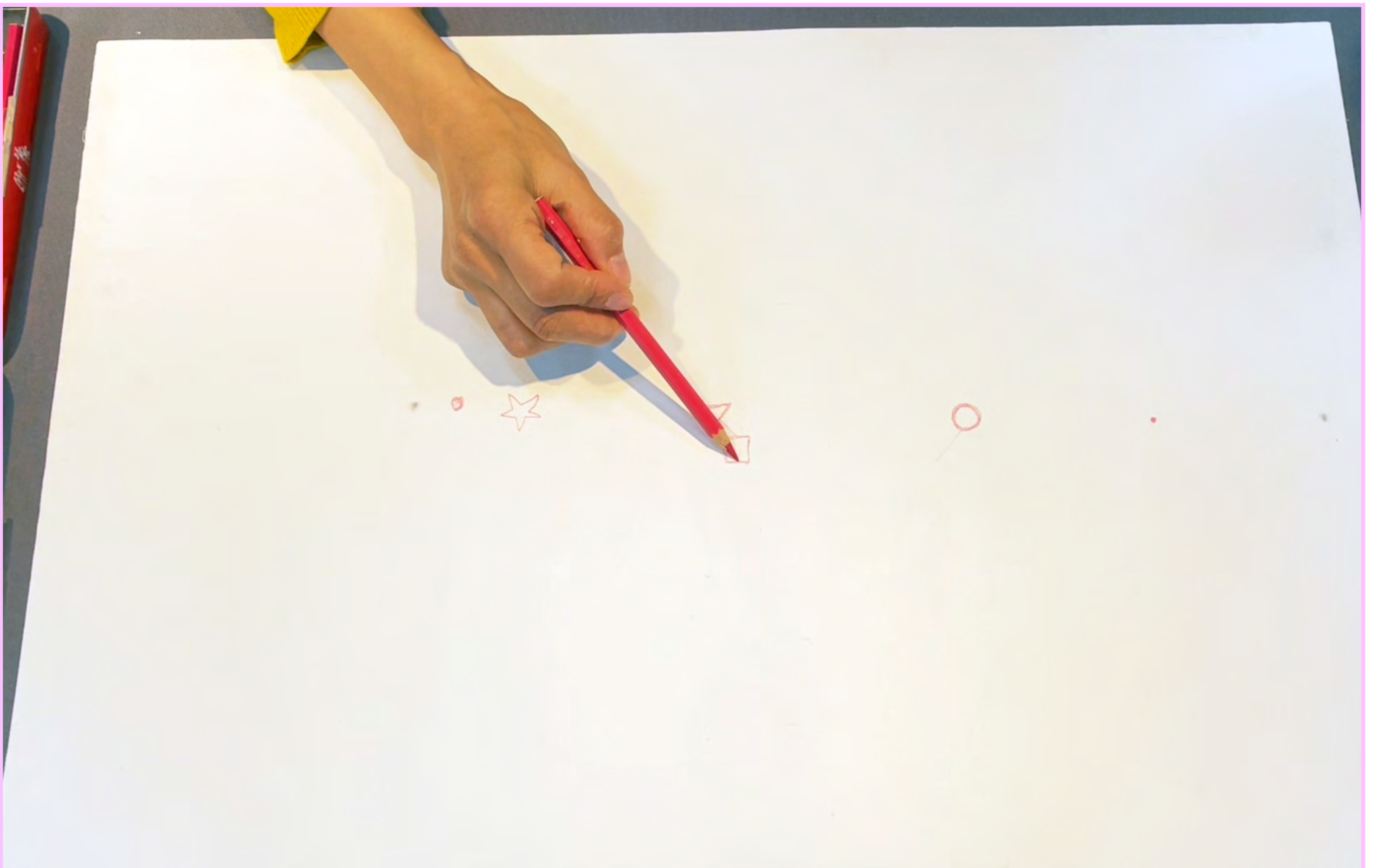
올해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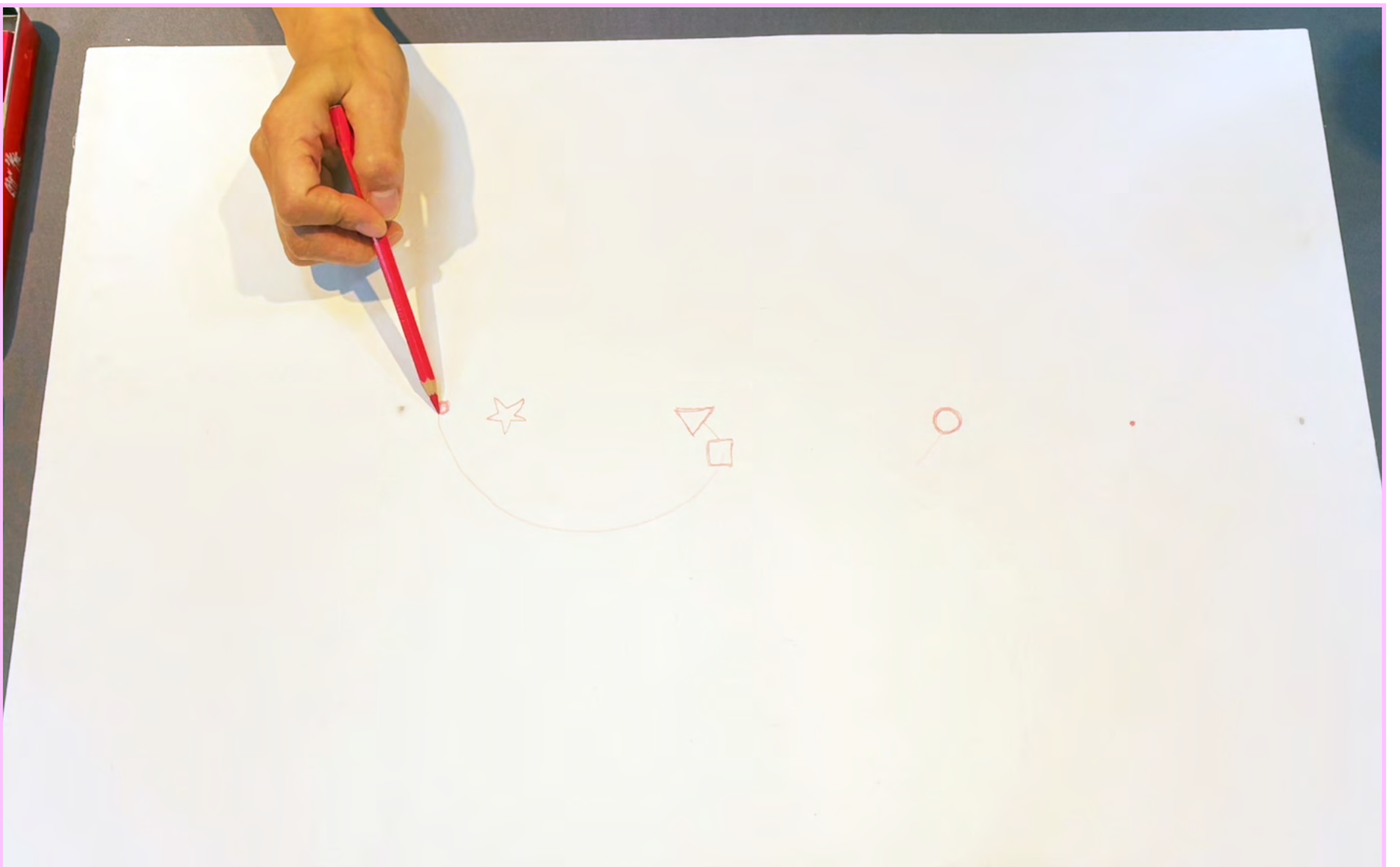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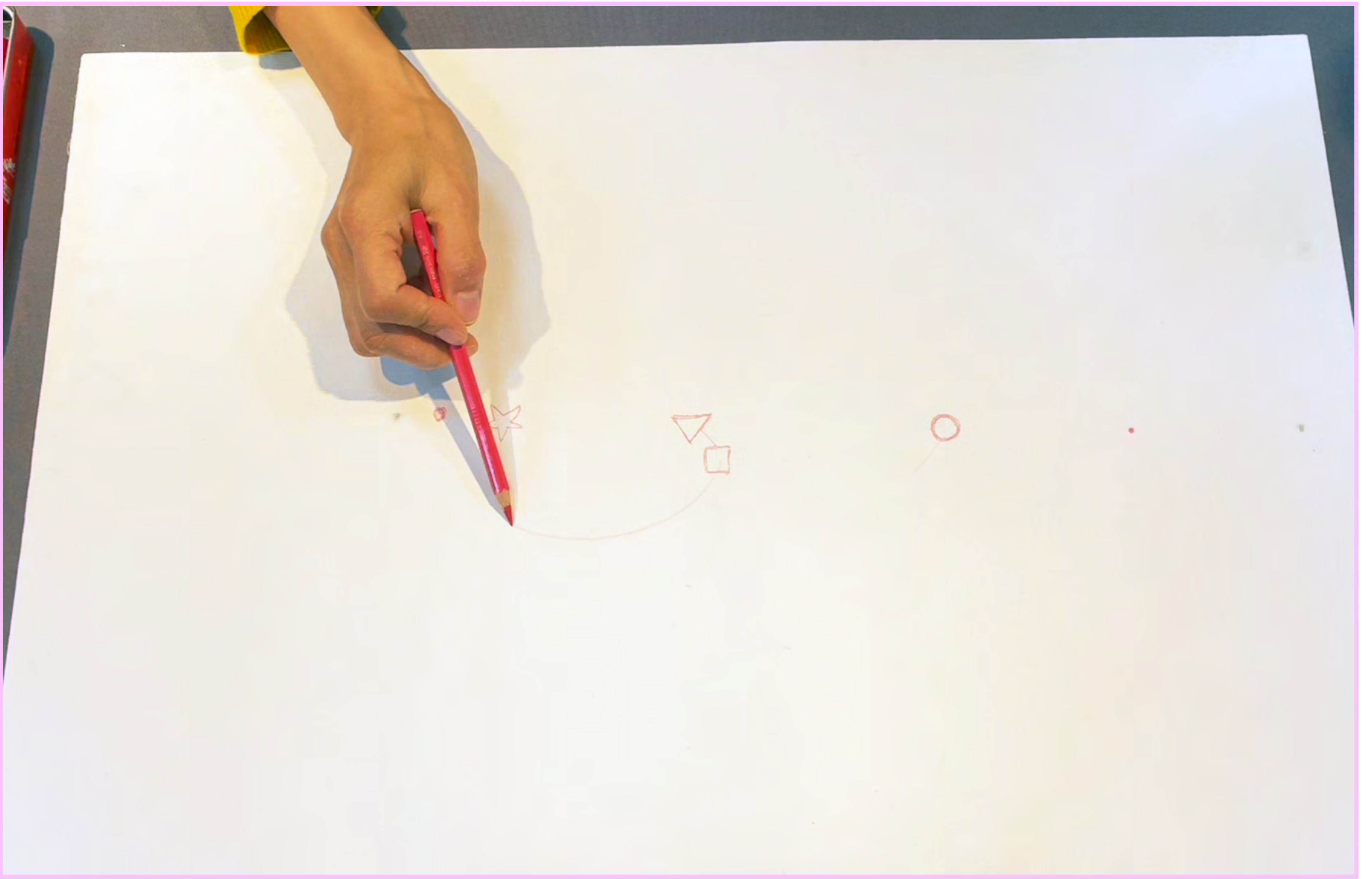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ㅎㅎ 한 번 밖에 ㅎㅎ(안 봤지만.) 이완 작가 작업을 그 때랑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램쿨하스가 설계한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이완 작가 작업 많이 봤었거든요. 그룹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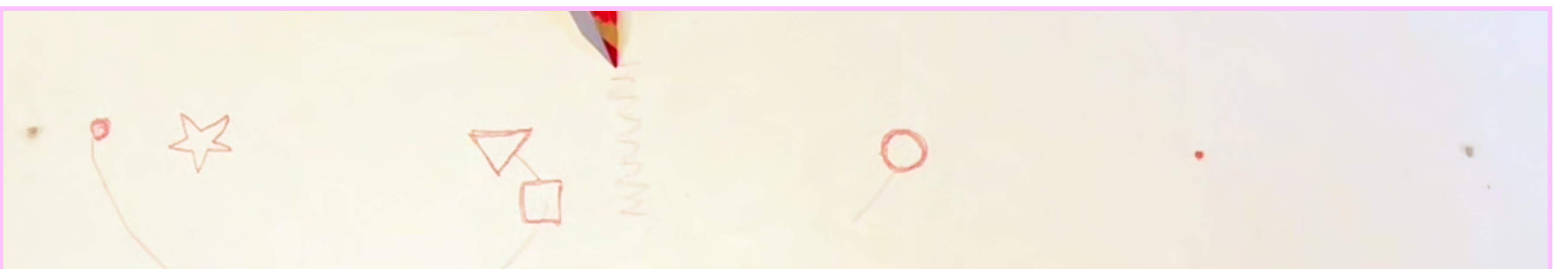
32:37

네,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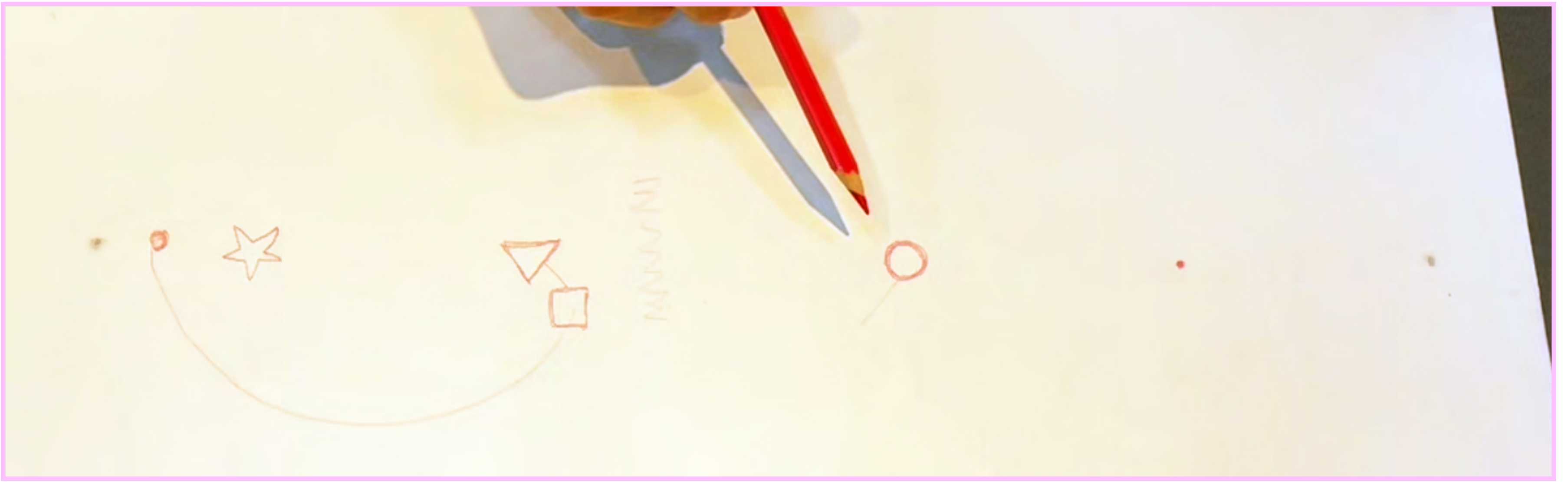
친구

3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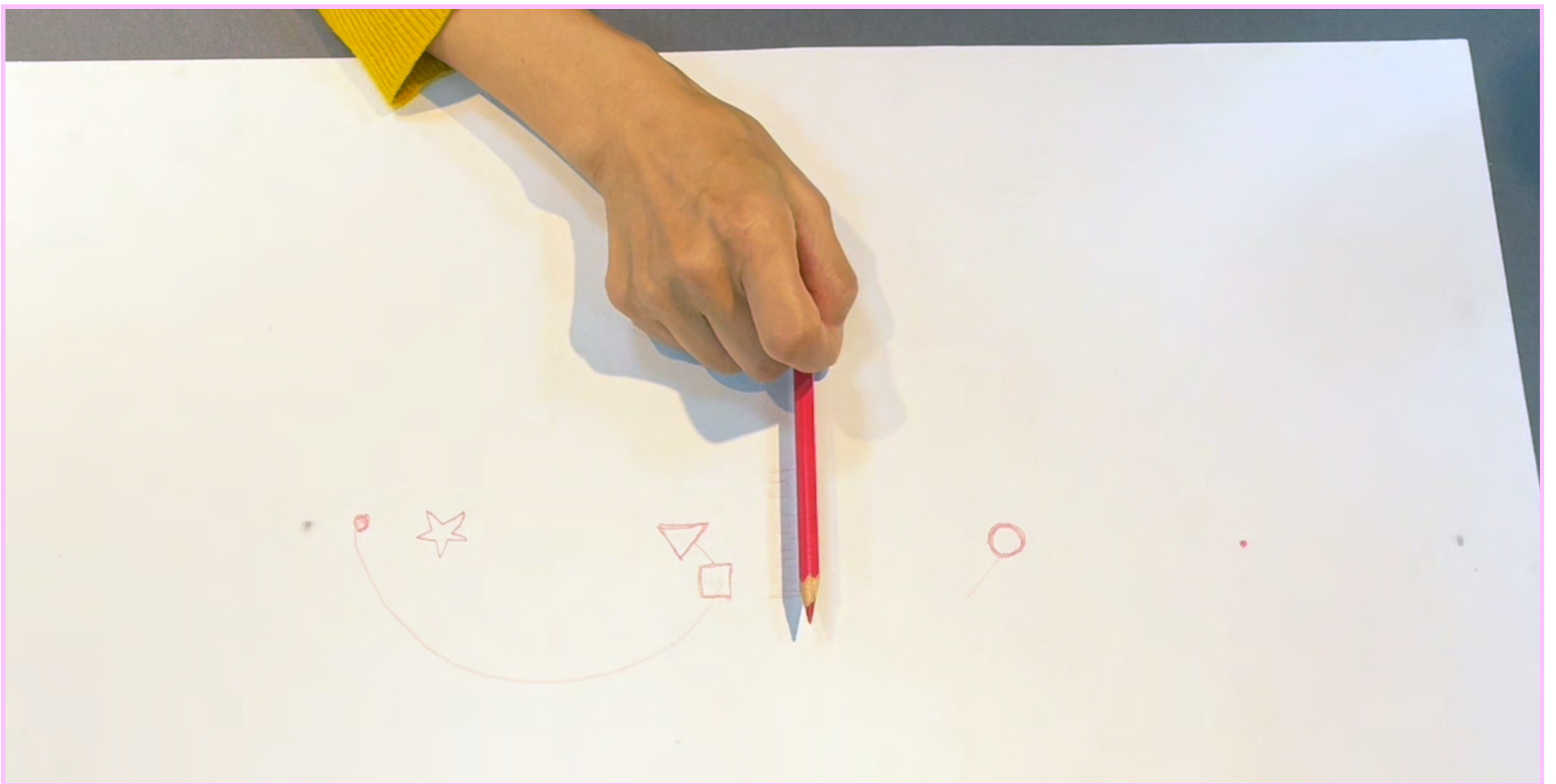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허무 같은 게 약간 와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게...



이때는 되게 알고 싶고, 궁금하고, 더 보고 싶고, 이런 게 막 있었고 그랬는데.



좀 알아도 더 이상 이 벽 같은 것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층위들이 갈수록... 미술 하나 하나의,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에 대해서 생각) 할 때는 되게 쉽고 재미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Patron한테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파트론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끝이 없고. 그리고 또 생활사가 그 시대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벽에 갈수록 (부딪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가능하게 된 철학 같은 것까지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벽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ㅎㅎㅎ.

—씨

34:17

그럼 그다음에 다시 전시를 보기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계기로 다시 보시게 되셨나요?

친구

34:25

전시를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이런 열정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막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가봐야 될 미술관도 많고, 박물관도 많고,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겠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관심 가면... 이렇게 많이 보는 건, (내가) 학자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많이 볼 이런 일 없겠구나 해서. 예전에 한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씩 보고 막 이랬으면, 그다음에는 소식 들리면 한번 보고 괜찮으면 또 보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씨

3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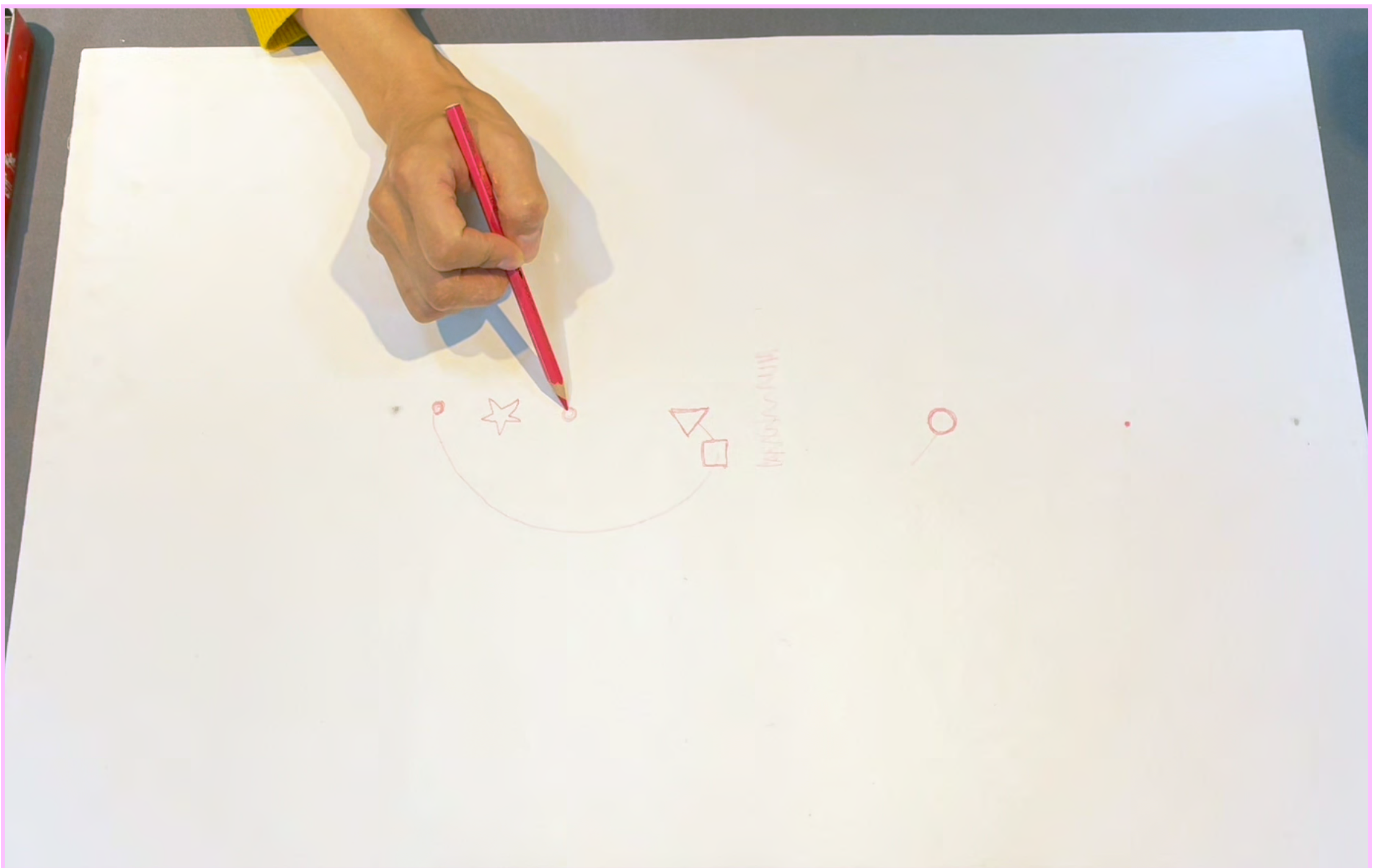
그럼 소식이 들렸을 때 가보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완 작가님처럼 이전에 봤었던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친구

3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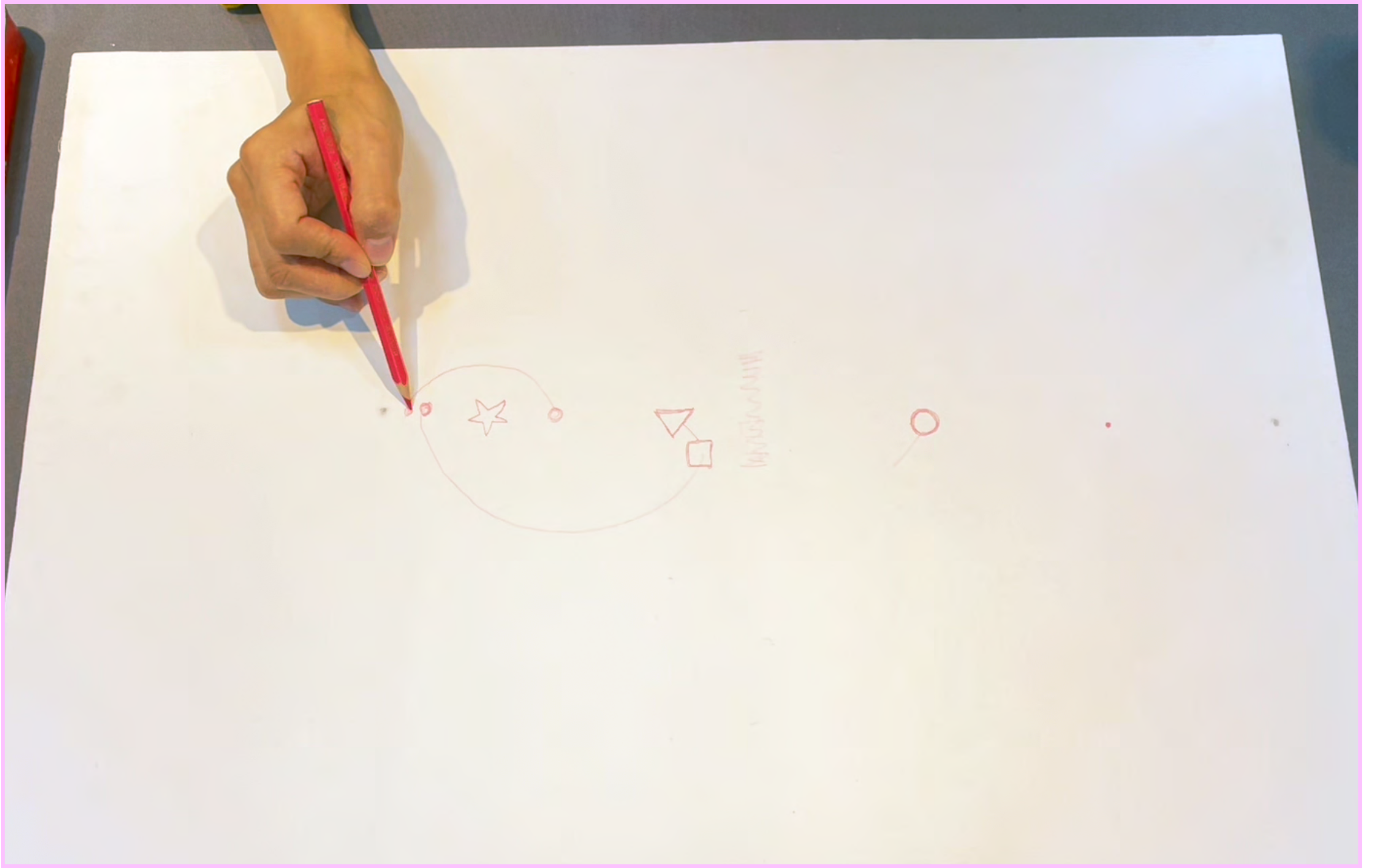
네, 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북동 최만린 미술관에 갔었는데 거기도 되게 건축이 좋은 거예요. 그때 오종 작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게, 그게 또 공간하고 작품이 맥락도 있는데, 이게 약간 힘 대결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그 긴장감, 균형감 이런 게 되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적절하게 이렇게 있으면서도 작품이 좀 매력적인 그런 게 있어서? 또 얼마 전에 페리지에서 오종 작

가 전시한다고 그래서 갔었죠.



### 3) 전시 관람의 과정과 환경 - 빌 비올라(부산시립미술관)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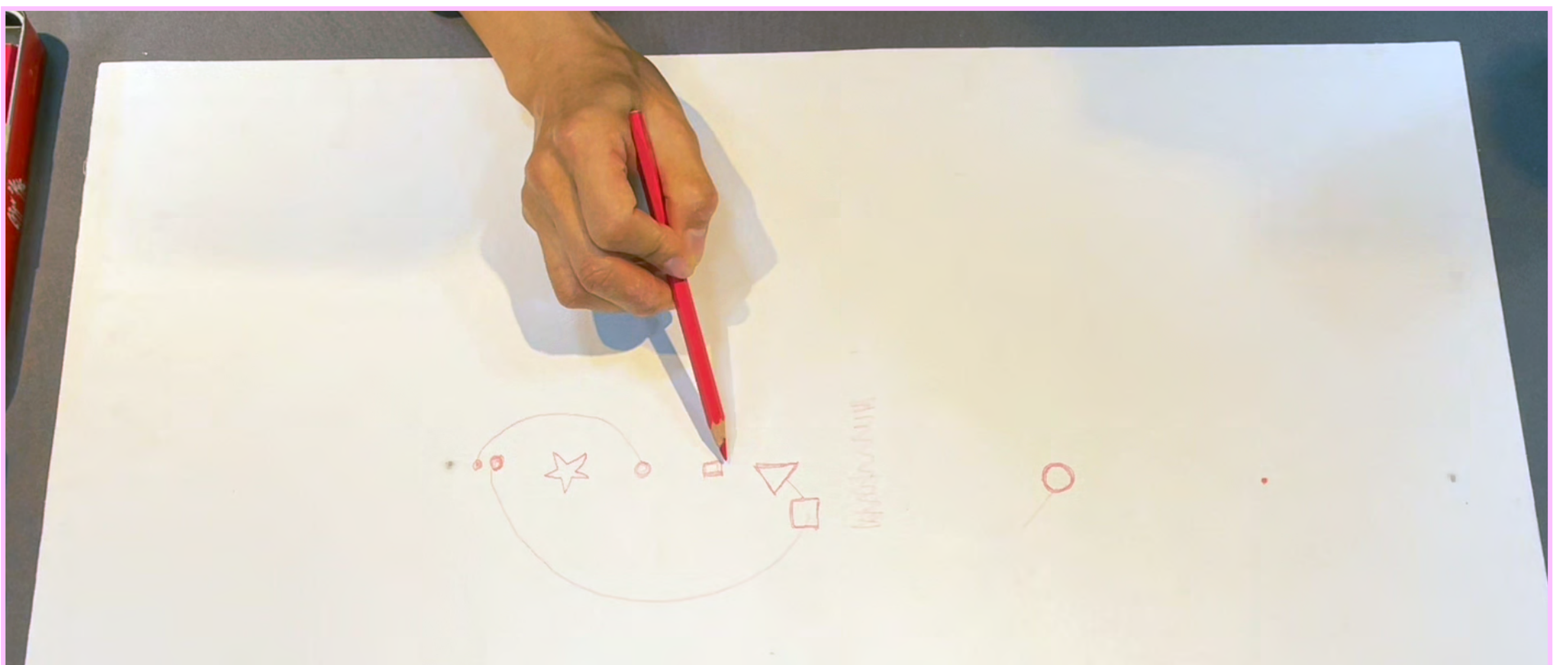
36:25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전시나 아니면 말씀을 미처 못 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그때 당시에 보셨던 **관람 동선이나 주변의 환경, 그때의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떤 전시가 좋으실까요?

친구

3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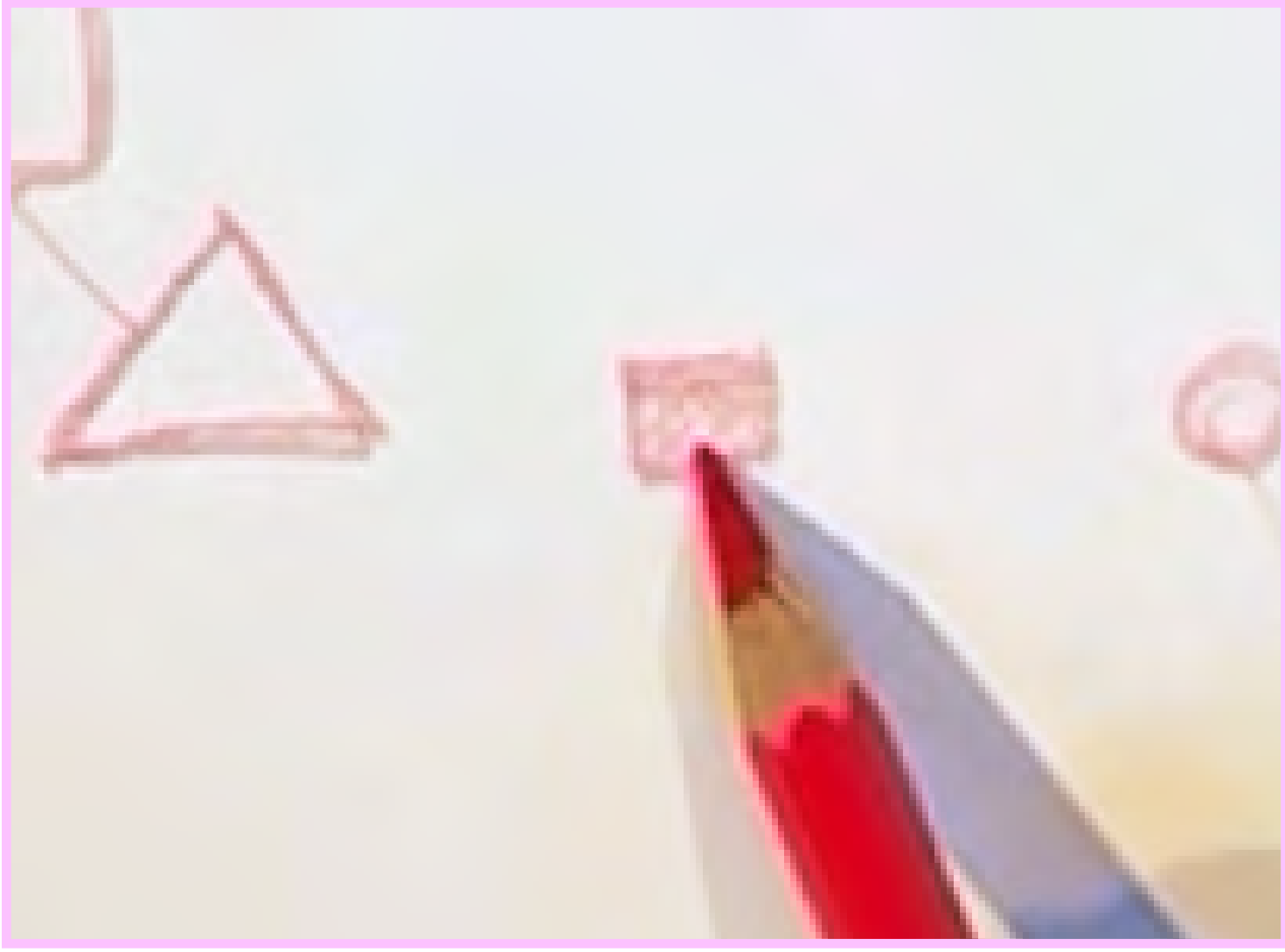
제일 오래 본 전시가 그 **빌 비올라 부산에서 했던 전시, 진짜 오래 봤었어요.** 그 때 그거는 그냥 다~ 봤던 것 같은데. 한 이쯤 될 거 같은데.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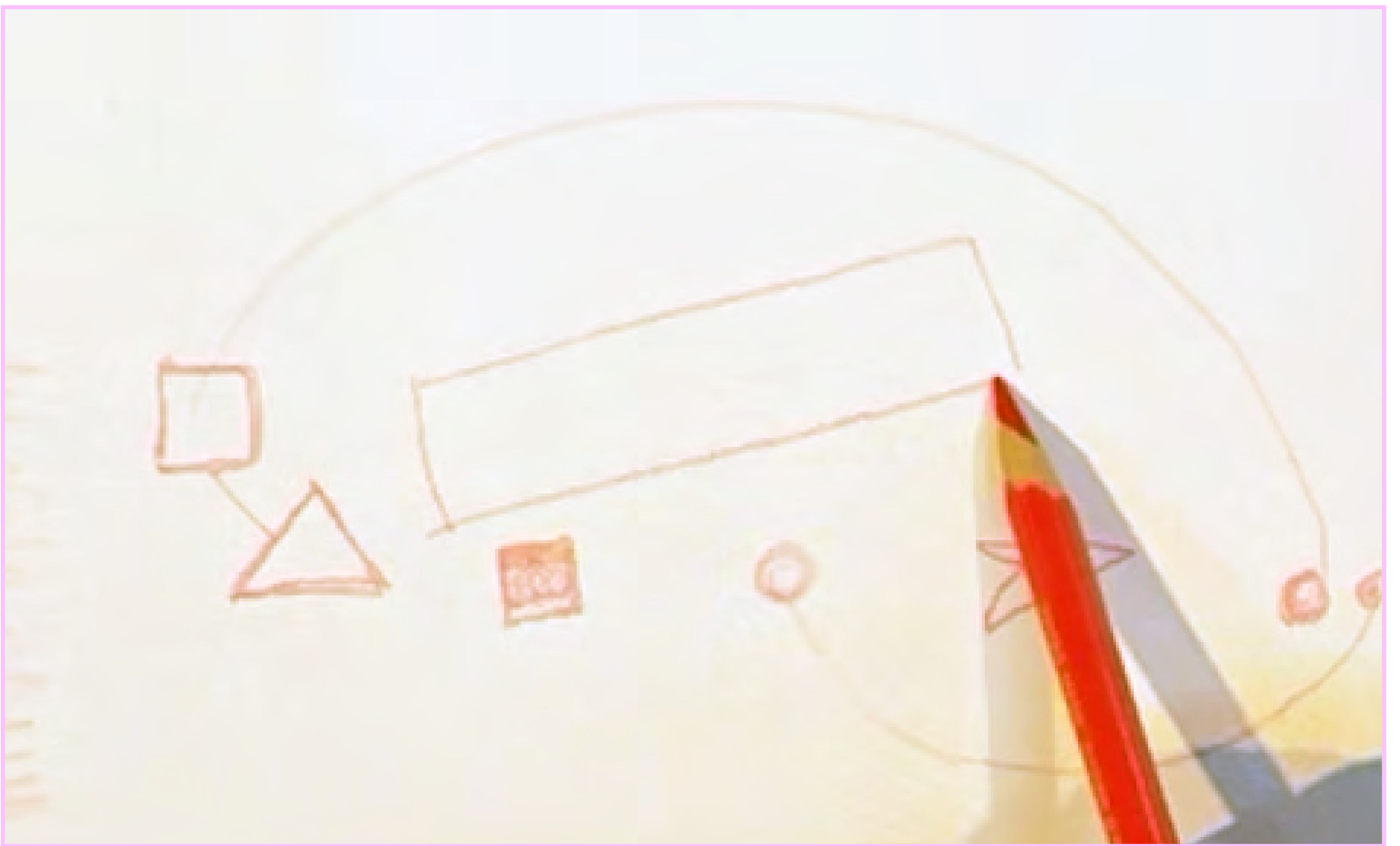
37:25

그게... 영상 작업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스토리가 있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날씨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보려고 부산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한창 COVID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KTX를 타고 내려가서 택시 타고 갔었죠.**

거기가 부산시립미술관이고요. 가서... 음... 일단 부산시립미술관이 좀 이렇게 길게 생겼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시장) **오픈할 때쯤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데서부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들어가서, 여러 개,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다 보고.



그다음에 또 다 보고.ㅎ 그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또 뭐 옆방으로 가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큰 게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섯 개 있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막 이런 것도... 한 시간짜리는 또 한 시간 다 보고.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씨

39:25

하루 안에 연속적으로 계속 보신거죠.

친구

39:33

네, 네. 다 보고 그랬더니 한 6시간?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보고. 또 짧은 것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반갑게 계속 만나고, 근데 되게 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게 좀... 다른 거에 좀 이거 하기 싫어서(관람의 경험이 섞이기 싫어서) 이우환 선생님 작품도 안 보고 그냥 이것(빌 비올라)만 딱 보고 다시 택시 타고, KTX 타고, 밥 안 먹고 그냥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 봤던 것도 있고... 그런데...

#### 4) 빌 비올라 전을 6-7시간 관람하면서 느낀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

—씨

40:38

그때의 신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 같은 게 기억이 나세요?  
6시간 7시간 동안의.

친구

40:55

그런 감정의 변화 같은 건 없었고 그냥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그때는 좀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불 같은 게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좀 물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물에 빠지거나, 물이 몰려오거나, 물에 이렇게 다 잠기거나, 좀 그런 건데. 계속 그냥 그 물에 대한... 물이 좀 이렇게 계속 몰려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걸어가는 작품도 있었는데. 그게 감각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던 것 같고. 어떤 관찰자, 어떤 사람의 일상들을 보통은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 길을 지나가는 걸 우리는 지켜보는 느낌이었고. 약간 관음증 비슷한 건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감각은 좀 물 같은 게 좀 몰려오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물이 많이 왔을 때는 나도 좀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

42:31

이렇게 물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주로 관찰하는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크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지켜보는 누구의 죽음을. 와서 죽음을 같이 하는 장면을 같이 이렇게...

—씨

43:07

지금 갖고 계신 관심사는 건축적인 공간과 작업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감상하는 당시에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부산시립미술관에서의 전시장과 스케일이 큰 영상 장면을 관음증적이면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그때의 공간과 작업 그리고 친구 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친구

43:55

관계를 안 맺었던 것 같은..ㅎㅎ 근데 부산시립미술관이 건축적으로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를 좀 오랫동안 보거나 관심을 오래 주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감정이 지나치게 들어(가거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들은 좀 사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서 좀 괴로워지거나 그런 게 있는데. 자연 현상이나 어떤 현상들을 되게 좀 냉정하게 관찰하는 그런 느낌을 새롭게 느낀 거 말고는... 그때는 이렇게 역사성이 그 건물에서 느껴졌던 것 같지도 않고.

—씨

45:19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 자연적인 형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자신의 상태를 느끼셨고. 한편으로는 가끔 이렇게 물의 장면이 강렬하게 다가올 때는 그 물이 자신에게 넘어오듯이 숨 막히는 순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다른 전시만큼 인상적인 미적 경험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친구: 영상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시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질문으로 인상적인 작업 중에 관람을 했던 과정이나 동선, 혹은 주변의 날씨, 이런 오고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을 여쭙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KTX까지도 타고 가셨고, 7시간이나 식사도 거르고 보셨던 그 경험이 사실 굉장히 귀중하고 큰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소환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 5) 몸과 미적 경험

—씨

47:03

그렇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경험을 나눠주신 것인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친구님의 몸으로 무엇인가가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인상적인 미적 경험이 있었던 전시를 한번 떠올려 주실 수 있나요?

친구

47:44

음... .. 큰 설치 작품 이런 게 좀 뭔가 더 감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 서도호 작가의 집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똑같은 집이지만 좀 다른 집?

아니면 아니쉬 카푸어의 큰 작품들? 몸으로 좀 이렇게 그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거가 있기는 한데...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좋다, 뭐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아니면 이렇게 우고 론디논네의 큰 게 또 귀여운 거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좀 설치 같은 것에서 그게 물성이나 크기나 그런 게 있는 것들을 좀 더 몸으로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막 '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씨

49:05

그렇군요. 사람마다 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

아요.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저와 다른 몸이기 때문에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름'이 작품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또 그걸 매개로 다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름'이 작품을 통해서 또다시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해져서 **제가 다른 몸을 굉장히 감각적으로까지 이해할 때 그 순간이 저한테 굉장히 큰 미적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그 다른 몸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저는 '몸으로 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몸으로 오는 순간에 여쭙봤던 것인데요. 하지만 언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비좁은 수단이어서 아마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님께서 뭔가 보셨을 때 뭔가 어떤 느낌이 오면서 내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은 언제 만나셨나요?

친구

51:01

**재구성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ㅎㅎ 김수자 선생님 리움에서의 작업(<호흡>(2021))이** 빛이 흐린 날은 잘 안 그러는데, 밝은 날 이렇게 거기 **무지개가 막 감쌌을 때 그때 좀 되게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진짜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빛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가 좀 '아~!'했던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좀 이렇게 머리를 이해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ㅎㅎ 이렇게 몸으로 '아~!' 이거는 실제 물건이 있었을 때 좀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영매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미술사적인 맥락, 역사적 맥락이 겹쳐지면서 '아~!' 하는 거지 이게 물성이나 그런 몸 때문에 그런 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6) '아쉬워서 다시 한 번' - 최만린 미술관과 오종 작가의 작품**

—씨

52:12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공간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주는 그런 굉장히 강렬한 순간을 사실 이 인터뷰 초반에부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맥락과 작업의 관계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이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르셔도 되시고요.

친구

53:56

성북동 최만린 미술관에서 좋았던 거는, 그 건물이 너무 크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제가 다 알 수 없고, 한꺼번에 다 안 들어와서, 호기심으로 발견하는 재미는 있지만 '우아!' 하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가가 한때는 작업을 했었다라는 생각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느낌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막 이렇게 느낀 적이 있나 싶기도 한데. 말씀드린 게 다여 가지고. 더 풀어내기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공간에 갔고, 가서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크지 않고, 한 번에 모습이 다 드러났고, 또 그 건축이 너무 평범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매력적이었고.

오종 작가가 빛을 처음 썼는데, 그 노란빛 같은 게 되게 그 장소랑 잘 어울리면서. 보통은 되게 잘 안 보이는 작업인데 되게 잘 보이게 하면서 그게 이제 건물하고 이렇게 두 개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건축이 작품을 압도하거나 왜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 건물에 비해서 눈에 띄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그렇지 않은 딱 적절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 같고. 최만린 조각이 또 그 조형 자체가 되게 좋은데 그 주변에 작품들이 너무 많지 않게 있었고. 또 동네도 좀 낯선 동네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좋긴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압도... ㅎㅎㅎ

—씨

57:05

꼭 압도 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ㅎㅎ 네, 그렇다면 기억나는 그 공간의 평면도를 그리시면서 한 번 더 관람한 지점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친구

58:08

정원 같은 게 있었고. 뚫린 공간이고, 층고가 되게 높았고요. 앞쪽에 이렇게

아치가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위애가 평평한 지붕이 아니고 삼각형 지붕이었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었던 거. 근데 이게 조명을 뜯어내고 거기에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3개 정도 있었나 다른 작가 작품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고. 아치 안에도 조그마한 전시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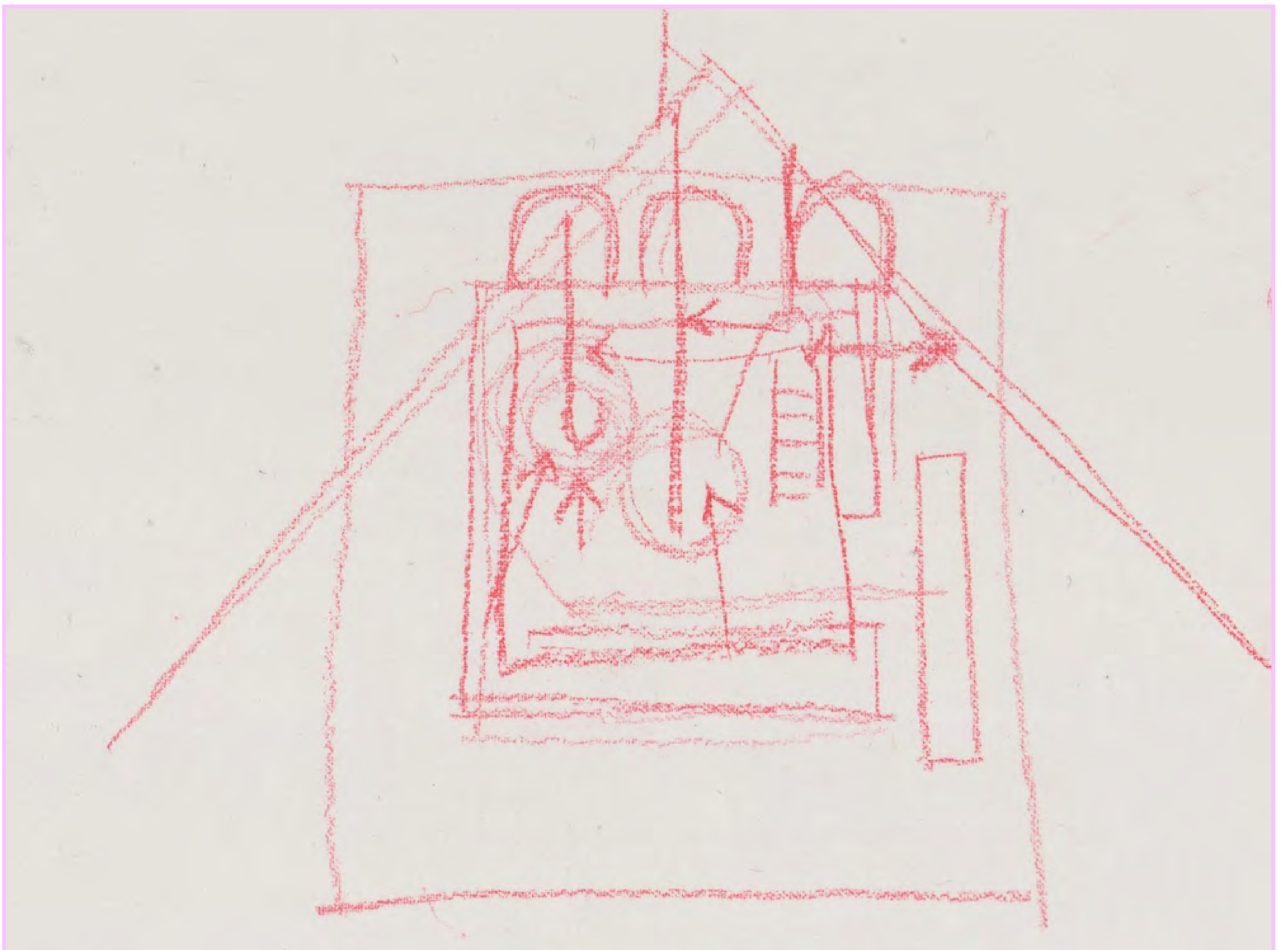
59:53

그때 어떤 동선으로 보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친구

59:59

맨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아치가 좀 되게 독특해 가지고 보고. 이제 전 등 작업을 발견을 하고 많이 보고. 작품들이 옆에서 보면 또 일자로 보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보고(원형) 또 밑에서도 올라다도 보고, 그리고 또 이 계단을 올라 올라가면서 옆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화살표들.) 2층... 2층에서는 이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2층에서는 서재랑 뭐 이런 거 좀 보고. 다시 또 계단을 내려오면서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또 이 위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2층 난간으로, 복도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아쉬워서 또 다시 한 번 ㅎㅎ 이쪽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씨

1:01:49

1, 2층을 오가고 난 뒤에도 친구 님께서는 아쉬워서 더 보셨잖아요. 그때 그 아쉬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

1:02:06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번 보고 쓱 사라진 거를 다시 한 번 또...

—씨

1:02:30

그러면, 보셨던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기억되지 못할까 봐 아쉬워서 더 보신 건데요. 그때 그걸 보셨을 때의 감각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묘한 긴장감'이었던 것인가요? 기억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던 그 것이.

친구

1:03:03

무엇인지 조금 더 하나하나 볼 때 이렇게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오종 작가의 전시)는 하나하나 봤을 때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 건축이랑 이게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게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사이에 하나를 다양하게 보면서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정말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근데 되게 작고, 가늘고, 빛이 강한 것도 아닌데, 되게 힘이 있네.' '이렇게 막 강해' 이런 건 아닌데 '왜 풀 같은 것도 생명력이 있으면 작아도 좀 단단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네'. 약간 그런 걸 중간중간에 좀 느끼면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씨

1:04:20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억하고 싶어서, 그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아쉬움은 이미 고정된 무언가를 받고(감상하고) 좋은 무언가를 받고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생긴 아쉬움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종 작가님의 최만린 미술관에서의 작업

에는 그 공간과 작업이 맺고 있는 미묘한 긴장과 관계 사이에 굉장히 무수한 시공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아직 다 탐색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친구 : 네, 네)

친구

1:05:04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건물도 봤다가 작품도 봤다가 건물과 작품의 관계도 봤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씨

1:05:20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오종 작가 작업을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참가는 선과 작은 덩어리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주어진 시공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 응,응)

네, 친구 님이 오종 작가님의 작업을 보신 감상을 제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보다는 한 번 그게 어떤 감각이었는지, 어떤 감상이었는지 친구 님의 언어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구

1:06:21

근데 그냥 그게 막... 어떤 작가의 작품을 한 번 더 보는 거는 그게 좀 매력적이라는 걸 이렇게 느껴서 가거나, 아니면 좀 '이게 뭐지?' 하고 좀 더 알고 싶어서 가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때는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다~ 다시 또 전시가 있으면 어떤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 6) '좋음'의 몸 감각 드로잉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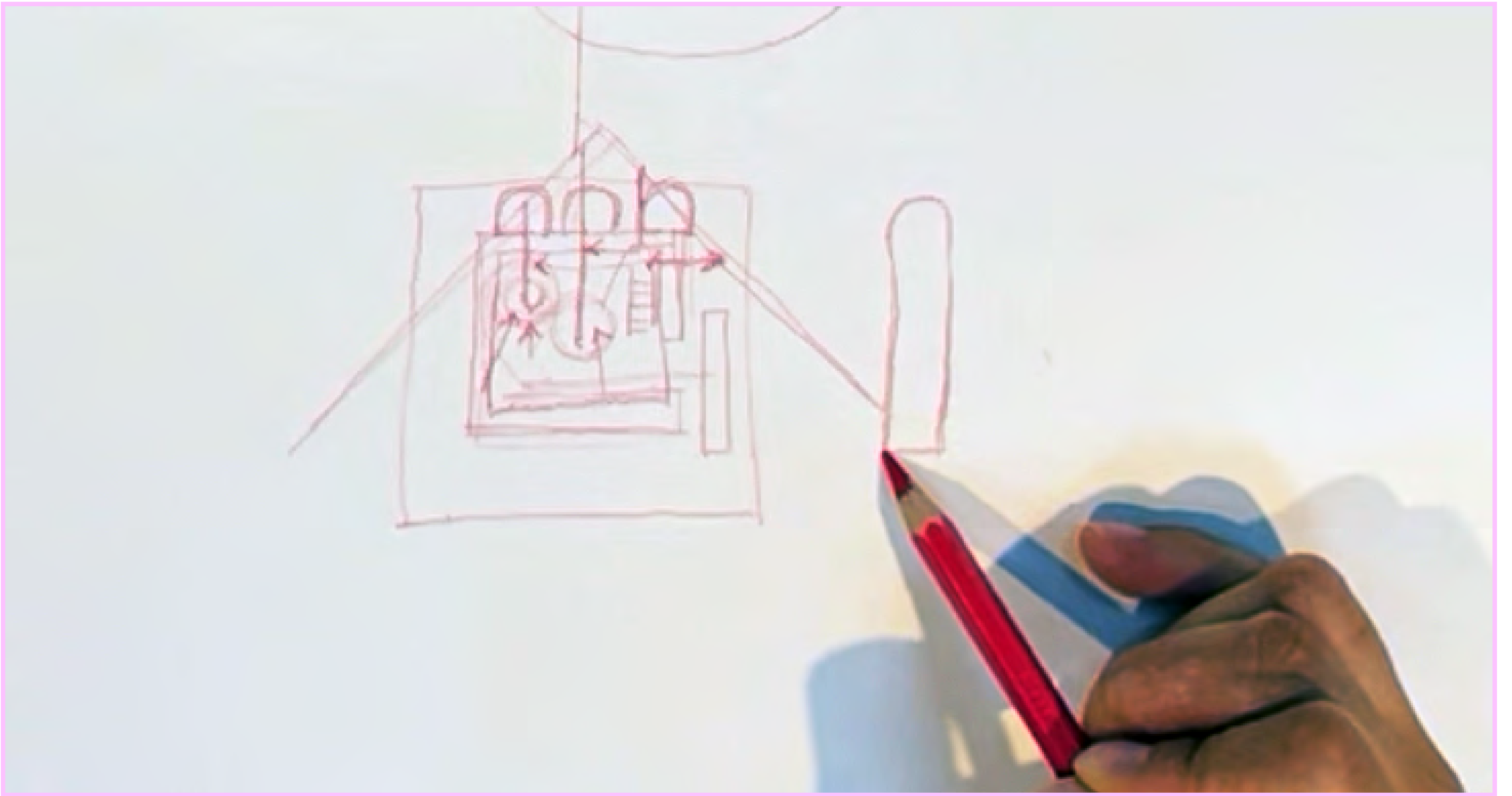
1:07:26

그러면 아까 친구 님께서는 '아! 좋다~'라는 느낌을 주로 어떤 맥락 간의 관계를 통해서 머리로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때의 '좋음'은 혹시 몸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졌는지 드로잉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모형 같은 걸 그려놓고 그 좋음이 어디서 어떻게 느껴졌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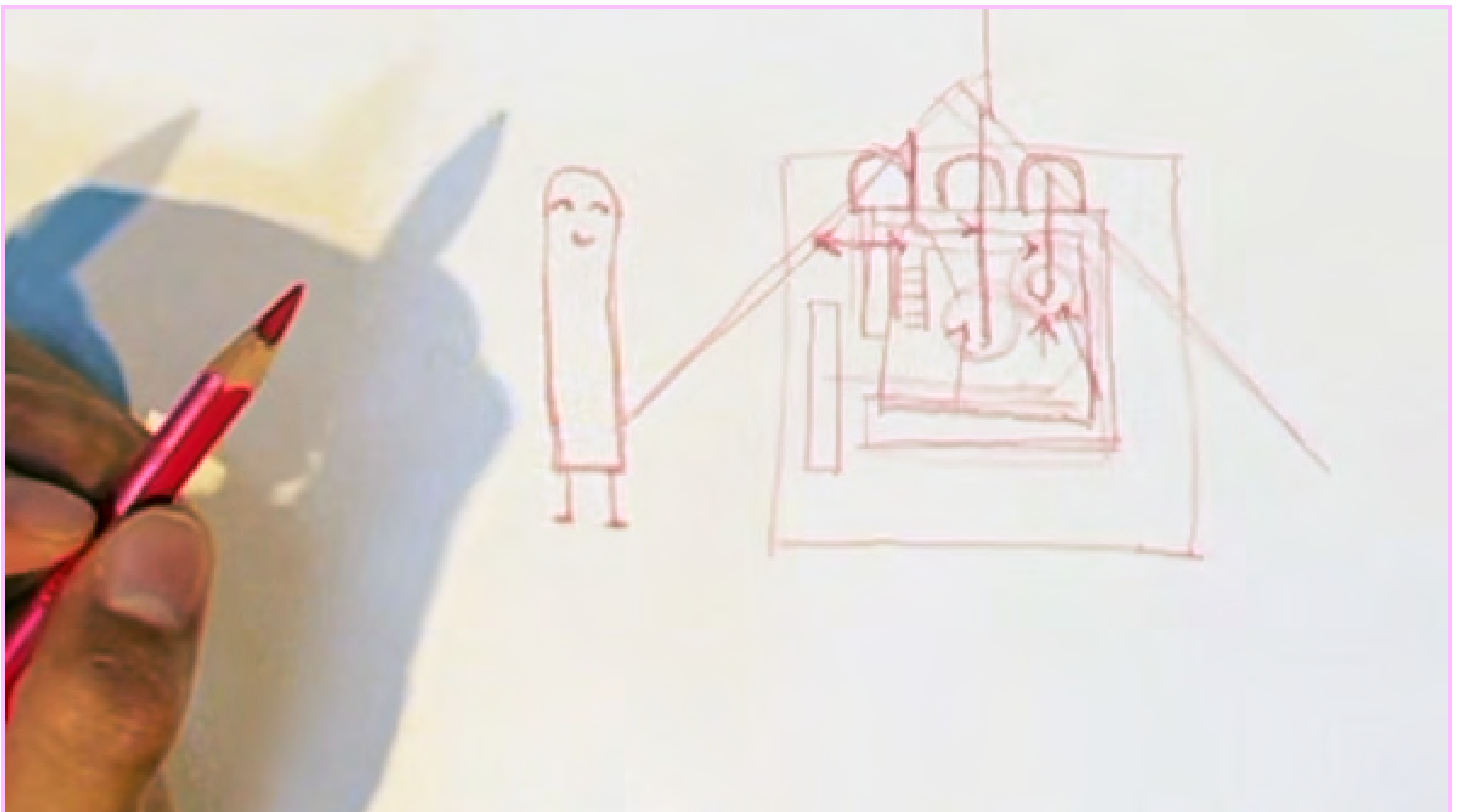
친구

1:08:05

ㅎㅎ 제가 감정이 막 세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냥 그냥 좋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글썄...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좋다', '흐뭇하다'.



—씨

1:09:05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어찌면 친구 님이 갖고 계신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느꼈다라기보다는 그 시간 안에서의 순간에 좀 더 감각의 방향과 초점이 맞

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치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몸을 제가 그려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그 몸 외까지 혹시 뭔가 그려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그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드로잉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좋은 시간을... ㅎㅎ )

—씨

1:09:55

더 어려워졌네요. ㅎㅎㅎ

친구

1:10:05

그냥... 그냥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에 어떤 층위를 그냥 되게 좋은 걸로 한 커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씨

1:10:35

그 시간의 층위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려주셨네요.

친구

1:10:43

어떤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고. 모르고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채우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많아지면 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없다면 우울한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은?

—씨

1:11:14

네. 그러면 **오종 작가님의 그 전시를 보셨을 때 느꼈던 그 좋은 시간이 내 안에 쌓이는 듯한 그 감각을 그 전시 본 이후에 일상에서 또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후나 이전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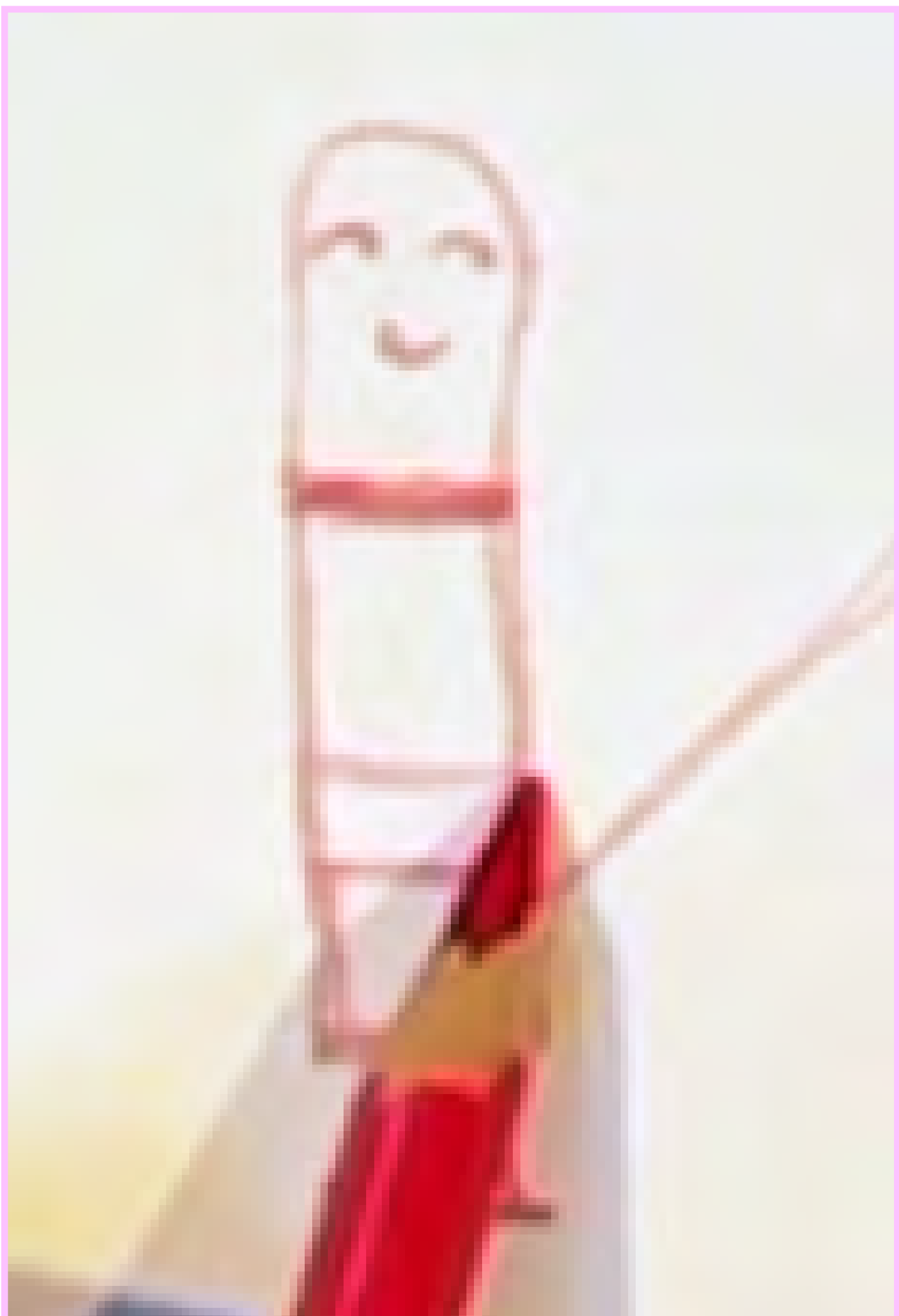
친구

1:11:35

그러니까 이런 **골목 같은 걸 발견할 때 좀...** 주로 어떤 작가 전시를 되게 낯선 곳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어떤 데지?'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서 '어, 여기도 괜찮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 쌓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새로운 좋은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경치같은 것도... **안 가봤던 낮은 언덕 같은 곳에 올라갔는데 한강이랑 이렇게 경치가 되게 멋있게 펼쳐지는 것도 발견하면 '어~ 좋은데~'** 이런. ㅎㅎ



친구

1:12:42

...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장소? (—씨: 네.) 기본적으로 '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ㅎㅎ

—씨

1:13:14

별로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는 한두 번은 그래도 있으신 적이 있는 것일까요?

친구

1:13:18

그거 자체도 강도가 막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충만감 비슷한 그런 거지 막 '아~~!!' 이건. ㅎㅎㅎㅎㅎ

—씨

1:13:28

ㅎㅎㅎ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만감이라는 단어가 멋있는 단어 같은데요. 충만감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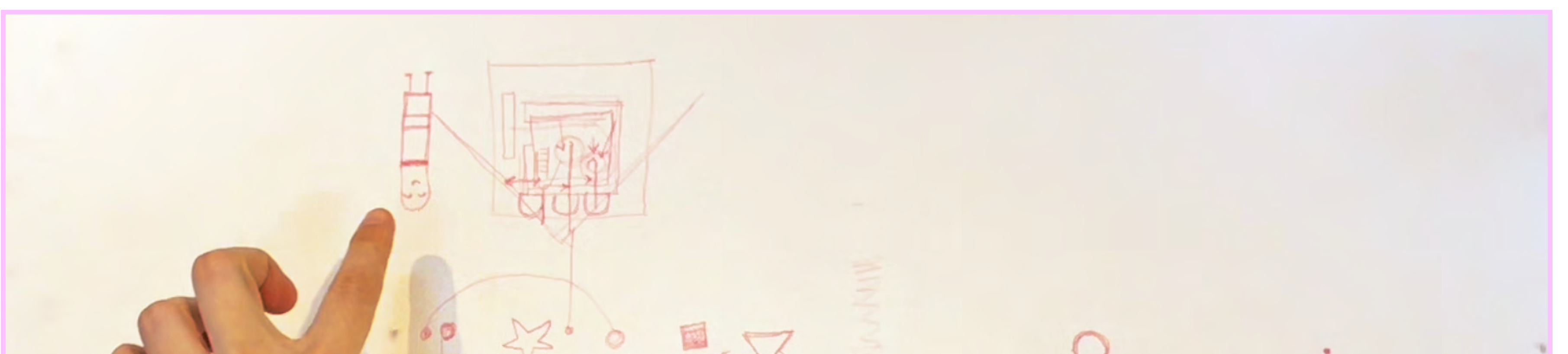
1:13:40

보통 자연이 멋있을 때라든가? 그리고 되게 같은 공간인데 새롭게 발견한 다거나. 그것도 이렇게 좀 뭔가 층위를 쌓아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이 작가를 알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에서 좀 쌓아가고? 그럴때? 그리고 뭔가 이런 거를 읽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그럴 때도 좀 충만감, 뿌듯함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씨

1:14:26

그러면 오종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 그어주신 이 선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것도 일종의 충만감 인가요?

친구

1:14:47

충만?... 충만감보다 조금 아래 뿌듯함, 아니 만족감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충만감은 이렇게 스케일이 더 큰 데서 느끼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뭔가 몰랐던 걸 갑자기 (알게 된다던가). ㅎㅎ

## 7) 작업마다 달리 기대하는 다양한 미적 경험들

—씨

1:15:16

그러면,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감각과 '충만감'과 같이 미적 경험의 양상들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는데요. 보통 전시를 보실 때는 어떤 경험들을 하세요?

친구

1:15:41

그냥 그게 색? 저는 좀 구성 요소들, 형태나 색이나 크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마크 로스코가 되게 좋은 거는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감정이 색면으로 커커이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느꼈을 감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고. '내 감정들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겠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물감 덩어리 같은 게 뭉쳐 있어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좀 주도적인 감정, 좀 강한 감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색이 없이 왜 보라색이 정면으로 막 있는 것들 보면, 감정을 장처럼 발효시켜가지고 그게 하나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게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구성 요소 자체에서 느끼는 것 같고. 그런게 되게 좋은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랑 딱 맞는다고 느꼈을 때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를 보는 새로운 눈 같은 거를 좀 발견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럴 때, 그럴 때가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대 미술은 뭔가를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뭔가 조사를 해서 알린다든가, 뭔가를 구성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사회학쪽이나 다른 활동도 이렇게 할 텐데 미술가

들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를 발견하는데. 그때는 막 기쁨이라기보다는 뭔가 발견에서 오는 '뿌듯함'같은 것? 그냥 딱 압도당한다는 느낌은 기본적인 점, 선, 면, 구성, 색, 마티에르 느낌, 돌 그 자체... 그런 데서 (느껴지는). 철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돌이나 나무나 이런 그거 자체에서 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씨

1:19:03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수자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요?

친구

1:19:08

응... 소리나 다른 걸 환기시키는 그런... 그 작가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서랍을 열면 수집했던 거랑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그런 작업이 송은에서 있었는데. 그걸 보면 프루스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작업만 보면. 뭔가가 청각이나 후각 같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억이 확 소환되는 것처럼. 그 장소를 이렇게 소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다른 작품이랑 연관이 딱 돼서 '되게 닮았다' 이런 걸 느꼈을 때도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민 작가가 좋은 건 그냥 색감 자체가 주는 그런 거에서 되게... 영상의 색깔이 (좋아서). 약간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냥 딱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영상 자체의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음은 '나는 되게 예쁜 색과 정제된 그런 공간, 되게 공간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되게 정갈한 느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작가마다 좀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데에서 '좀 좋다~' (를 느끼고). 또 센 작가들 좋아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과감함 같은 게 또 좋아서. 내 상처를 용감하게 드러낸다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것들을 용기 있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또 제가 못하는 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되게 좋은 그런 계열이고. 장파 작가. ㅎㅎㅎ 약간 되게 세서 집에다가는 못 걸 것 같은데? 트레이시 에민이나 약간 그쪽에, 루이스 브루주어나. 약간 그런 쪽으로... 더 그런 데서 약간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고. 다 작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씨

1:21:58

엄청 풍성하네요. 풍성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 2부

### 3. 아마도예술공간의 전시 관람

#### 장종완 개인전 <<누아르 마운틴>>

## 3부

### 4. 아마도예술공간의 전시 관람 경험

#### 1) 퀘적과 본 것 그리고 ? !들

—씨

1:46:11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보셨나요?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죠? 길지는 않더라고요. (친구: 네.)

보통 전시나 공연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창작자가 많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저에게 어땠냐고 물으면 막막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언어화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떠셨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막막하시지 않도록 동선을 중심으로 그려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는지 또는 발견하셨는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필기도구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요.

친구

1:47:36

좀 유치한 색깔이 필요해요. ㅎㅎ

날이 맑고 햇빛도 잘 비치고 그래서 지하 먼저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들려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게 됐고. 처음 넓은 창이 있는 공간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예전에 뭐 이렇게 관련 자료 같은 거 있었던 적도 있었고.

첫 번째, <붉은 지붕 아래\_유기농 시리얼 에디션>도 보고. '이거 잘 모르겠다.'ㅎㅎ 인형들을 되게 못생기게 바꿔놔가지고. 결혼식 장면인데 못생기게 바꿔놓고. 또 중간중간 그 인형의 집 안에 입이나 이런 게, 큰 게 막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ㅎㅎ'. 장종원 작가는 보면 되게 재미있게, 유머러스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유머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느리게 몸을 움직이고 축하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축하하는 그 감각보다는 느리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양도 이렇게 보고. 뒤에 회화 장면, 회화의 눈도 이렇게 반대로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재밌었어요. <김상철>, <윤진미>, <행성>이 있는 그 방에 털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가님이) 털을 많이 쓰시잖아요. '또 털이 나왔구나.ㅎㅎ'라는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그 전에 <구름이 웃어> 거기에 이제 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귀와 머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하는데 그 귀 끝에 이렇게 자물쇠랑 열쇠가 귀걸이처럼 매달려 있는 게 뭘지는 모르지만 또 '되게 재밌네~'.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그 털이 막 있는 거는(<폴스미스>) '경치가 있는데, 이렇게 털을 왜 썼을까?', '이 작가는 경치 위에 털을 왜 덮고, 털을 왜 이렇게 사방으로 돌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또 가발 있는 것도, '이렇게 경치가 있고 위에 이렇게 가발을 씌워놨을까?'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 털이고 이제 (사람에 해당하는) 두 개는 가발인데. '사람은 약간 경치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한건가.' 근데 거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보석을 경치에다가 붙여놔서.ㅎㅎ '저거는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가지려고 붙여놨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예전에 만났던 털을 다시 만난 반가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여름>은 제일 익숙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유사 종교의 파라다이스 같은 유치한 형광 노랑, 형광 초록, 보라 이런 계통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그냥 지나갔고.

그다음에 안쪽에 그거는 처음에 제목 보기 전에는, 인삼이 사람처럼 이렇게 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고 옆에 백조가 있는데. 되게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인삼을 성인처럼 표현한 그런 것도 다시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위에서 이걸(캡션을) 보니까 이렇게 <뿌리내려라 인삼>이 제목이어서.ㅎㅎㅎ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재미있거나 작품이 되게 재밌고. 이게 재미있는

거는 있는데 '뭘 얘기하지?' 이거는 제가 잘~...

그리고 거기 이렇게 가짜 낮이랑 그것도(<야마하하하>) '가짜 풀을 낮으로 벤다는 얘기인가?'. ㅎㅎㅎ '뭔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것도 밑에 보니까 리코더가 있는데 '그걸 왜 붙여놨을까?'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곳에 다른 거를 갖다 놓고 새롭게 보게 하려는 시도 같은데, '그게 뭘까?' ㅎㅎㅎ 약간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산, <누아르 마운틴>. 산에 보일 듯 말 듯한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저건 뭘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보고. 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보고. 좀 이상한 거 조금 집중해서 보고. 익숙한 거는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위로 올라가서 그 유리로 된 그 공간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항상. ㅎㅎ 또 날씨도 좋고. 갔더니 또 털을 만났는데, 동물의 털이 깔려 있고. 자세히 보니까 코랑 귀랑 이렇게 있으면서 침이 콧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고 느꼈는데. 또 앞을 보니 '울지 마 바보야'가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재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울지 마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렇게 보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아, 정말 하늘이 파랗구나, 해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한 번 감탄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강한 회화>도 약간 이 뒤에 <생존자>랑 같은 맥락 같은데. 무를 닦은 사람 발에다가 이렇게 또 침을 콧아놔서. '요즘에 건강 신경 쓰는 현대인들을 ㅎㅎㅎ 얘기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또 소리가 나서 다락 같은 공간으로 봤죠. 그 공간도 되게 좋아요. 다락 같은.

<에스터데이>인데 처음에 털이 또 막 움직여서 '또 털을 만났구나!'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숨소리도 내고, 울음소리 같은 것도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도 보고,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게 오토(?) 그 동물 같은 그거구나!'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ㅎㅎ 이제 그게 되게 오래 계속되다가 그다음에 또 그 유사 파라다이스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 가운데 이렇게 곤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에스터데이'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작품을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계속 오랫동안 보게 하고, 여러 번 보게 하기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지?' 하고 가게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그냥 가게 만들었던 작품 같아요.

친구

1:57:58

그리고 그다음에 <오메가 포도>, <버섯 행성>, <버섯 우유>. <오메가 포도>도, 이게 포도인데 근육이 막 발달된 포도가 슈퍼 히어로처럼 이렇게 하

늘을 나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 <생존자>하고 <건강한 회화>랑 같은 맥락의 작품인가?' '근데 얘는 또 다른 방에 있는데, 이게 <버섯 행성>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혜성이 막 다가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버섯 구름이 막 올라가고 있고, 독버섯 같은 빨간 버섯이 가운데에 있는데, 이 세개의 맥락은 뭐지?' 근데 찾지는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조금 익숙해 보이기는 하는... 천국에서 호랑이와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동물들과 곤충들이, 사납고 유순하고, 작고 큰 곤충들이 있는데. 또 이게 젖소의 젖이 독버섯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제목은 <버섯 우유>. '그럼 저기서 나쁜 게 나온다는 건가?', '약간 뭔가 재미있게 모아놓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이해가 어렵구나.' 이라고 지나서.

마지막으로 <묻어둔 편지>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색을 칠해 놓은 털인가?', '마지막 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묻어둔 편지'라고 그래서 '편지를 어디 묻었지?' 이렇게 보는데. 편지는 안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거울로 뒤에 그림이 보이고. 그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숨겨놓고 묻어뒀는데 이렇게 발견하라고 한 건가?' 그런 게 좀 유머 같고. 장치 같은 게 되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보고.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네.'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ㅎㅎ

## 2) 다양한 관람 양상들 중 하나, '내가 갖지 못한 위트'

—씨

2:00:34

네, 아까 되게 다양한 관람의 양상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형적 요소를 즐기는 차원이 있었고. 즐긴다기보다는 감화되는. 그리고 또 장소와 작품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맞는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대 동시대 작가들이 현대를 파악하는 새로운 눈을 제시할 때 다른 몸을 알게 되는 것 같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치 캠페인처럼 무엇인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인 작업을 할 때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발견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송은에서 보셨던 작업처럼 프루스트처럼 기억이 소환된다는 지점에서 다른 작품과 유사한 경험을 유발하는 유사성에서도 반가움을 느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센 작업이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대신하는 작업을 볼 때 느껴지는 확장된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

는데요. 이 전시는 어떤 종류의 관람을 하게 되었나요?

친구

2:02:11

이것도...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위트나 유머감각 같은 게 저도 좀 없거든요. 이런 전시는 그런 점이 좀 재미있는 것 같고. 근데 장종환 작가가 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즉각적으로 더 잘 느껴지는 전시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거는 좀 정치적인 그런 발언 같은 게 그렇게 한 번 봐가지고 즉각적으로 왔던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 3) 전시의 생애와 접점, 그리고 '알아봄'

—씨

2:02:49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전시를 보면서 전시 서문도 보셨어요? (친구: 안 봤어요.) 네, 일부러 안 보신거죠?

친구

2:03:08

네. 정리하면서 보고, 또 궁금하면 다시 한 번 오게 되죠. 그 지점을 확인하려.

—씨

2:03:17

아, 보통 그런 식으로 감상을 하세요?

친구

2:03:21

그렇게 읽었을 때 '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덮어두는 전시가 있고. 어떤 거는 '아, 이걸 내가 놓쳤으니까 한 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볼까?' 하는 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씨

2:03:37

그러면 보통은 전시를 보실 때는 텍스트를 먼저 접하지는 않고. (친구: 네,

제 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네, 그러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서 관람하신 다음에 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덱에 가서서 글을 보시나요?**

친구

2:03:59

**네, 왜냐하면 이게 보는 것도 좀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동시에 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씨

2:04:05

네,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글 얘기를 하게 됐냐면, '재미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장종완 작가님의 워트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전해졌던 **이전의 전시와 지금의 전시는 좀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서술이 이 글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 파악되기로는, **이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일종의 부조리극으로 만들면서 그 각각의 상황에 요소들로 분절적으로 각각의 작업들이 배치된 것 같아서.** 그래서 작업과 작업 간의 연결이나 아니면 그 작업 안에서, 그 배경에 놓인 어떤 상황이나, **부조리극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또 작가님의 **이번 전시는 작가 스스로에게도 어떤 과도기적인 장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전한 일치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전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시하고 공연을 같이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연**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관객이 어떤 우발적인 섷길로 새는 가능성을 막고 관객에게 고스란히 뭔가를 전해주기 위한 테크닉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온전한 전달을 겨냥해서 계속 연습하고 리허설을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그 시공간 안에서 한차례 완결되는 기승전결 혹은 주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연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주장이 한 작가의 삶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 전시와 그다음 전시 각각이 하나의 완결된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씬(scene)과 그다음에 올 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전시를 봐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전시 말고도) 전시의 생애와 관람 과정에서 친구님께서도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감각을 많이 느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시를 방문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겠는' 작품들을 전시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2:07:29

그게 예전에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ㅎㅎ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을 조금 편안하게 보려고 해요. 이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대신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뭐가 있고, 멀리서도 봤다가 가까이서도 봤다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런 거(가져오 서문)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즘엔 작가 웹사이트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장에) 다시 오는데. 와도 그게 또 수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ㅎㅎ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부담을 내려놓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어딘가에 내가 맞춰야 될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되게 답답하고.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걸 내려놓고 편안 마음으로...

—씨

2:09:00

그러면 그렇게 다시 방문해서 수공이 될 때도 있고, 여전히 모를 때도 있는데, 같은 전시회를 다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대로 모른 채로 지나가고. 시일이 지나서 그 작가의 다른 전시를 보셨을 때** 뭔가 어떤 서사가 이어지거나 이해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친구

2:09:32

계속? 계속해서 따라가는.... 근데 계속 해결을..(—씨: 해결이라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는 작가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편이긴 하고. 또 **그룹 전에서 만나면** 그래도 눈이 많이 띄니까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보고). 옛날 작품이면 다시 보고 새 작품이면 '새 거가 나왔네!' 하면서 다시 보는 편이긴 한데. 이해도가 막 더 높아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오민... 작가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ㅎㅎ 박혜수 작가 **(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서 '이런 거 하는구나,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다니기는 하고. **'전에는 이런 활동 이런 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구나.'**

몇몇 작가들은 그렇게 해서 좀 알고 싶어서 리움 같은 데서 작가 초청 같은 거 하면 가서 좀 듣기도 하고.

—씨

2:11:39

네, 모든 작가를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팔로우업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서, 워낙 전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러 작가들이랑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일종의 시간의 선형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때의 그 선형적인 흐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그 작가'를 이해하고 '그 작업'을 알게 되고 '그 감각'을 느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친구 님의 삶에서 다른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친구 님과 동떨어지게 존재하다가, 전시를 통해서 접점이 일순간 생겼다가, 또다시 헤어지기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2:13:06

그게... 일찍 만난 작가들인 경우에는 왜 약간 팬심 비슷하게, 영재 피아니스트를 되게 어렸을 때 만나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 처럼,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공간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전시를 하다가 성숙하면서 (전시를 여는) 공간들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데에서 처음에는 전시를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하이트 컬렉션 같은 데서 보다가. 그다음에는 송은이나 페리지나 이런 데서 보다가. 그다음에 성곡이나 아라리오 뮤지엄 이런 데서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리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보다가 또 해외에서도 보게 되고. 그렇게 공간을 바꿔가면서 조금조금씩 더 크고 알려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더 인지도도 쌓이고 그렇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알게 됐는데 이 무슨 상을 받았더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동시대에 같이 있으면서 '이분도 뭔가를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그 미술계 안에서 쌓아 나가시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갤러리도 작은 한국 갤러리가 있고 또 좀 더 큰 한국 갤러리들이 있고, 해외 갤러리들

이 있는데. 이렇게 (작가와 내가 )마주치는 지점들이 또 달라질 때 또 '그만큼 더 커리어가 쌓였구나.' 좀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다가 또 없어지게 되기도 하고...

—씨

2:16:11

네, 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작가들의 작업에 방향성이나 성장의 과정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보시는 친구 님의 삶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던 작가가 성장해 나가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별의 생태계처럼 같이 시공간을 점유하면서 각자 빛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의 흐름이나 과정들이 친구 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사실은 왜 전시를 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해보셨던 생각이나, 아니면 지금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친구

2:18:28

... 일단은 약간... 작가한테는 큰 의미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왜 옛날 미술사에는 여성 미술가들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없었던 거가 새로. '이름만 알아.'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만 안다'는 것의 의미? ㅎㅎ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작가를... 나는 이름을 알아.' 좀 그런 거.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아주 이런 사람만 알았는데, 더 그 변방 사람까지도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거론이 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 약간 나는 이 사람의 작품을 꼭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내가 보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나만의 책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냥 이름 불러주는 그거 하나도 되게 큰 게 될 수 있겠다. 뭔가 그 정도의...

그런데 그게 이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주는 게 아니고. '봐준다'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마주치는 게 없을 때는. 무언가의 뭐를 봐준다는 게. 작가랑 직접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시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작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프닝 때 만나는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되게 조용한 시간에 와서 작품을 보는 건데. '직접적인 접점은 없는 건데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작품을 한 번 봤어. 그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씨

2:21:13

감동적이네요. 작가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이라고 지금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대중 매체의 레퍼런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셨나요? (친구 : 아니요.) 네, 거기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매우 큰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을 나는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알아 본다.') 그리고 또 '비록 작가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오프닝에서 본 것도 아니고, 작품을 봤을 뿐'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차원을 통해서 그냥 오프닝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그 사람의 한 면을 알게 되는 거겠죠. 혹은 시간에 따라서 전시들을 쫓아 보다 보면 여러 면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작품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 '이름을 안다'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관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4) 결과 이면을 보여주는 <묻어둔 편지>와 이전의 작품

—씨

2:23:15

네, 그러면 다시 장종완 작가님 전시로 돌아와서... 그중에 인상이 깊은 작업을 하나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친구

2:23:42

저는 맨 마지막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묻어둔 편지> 그게. 그 '털'이라는 매체의... 장종완 작가가 맨날 카펫 같은 거에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런 매체랑 익숙하기도 하면서. 언뜻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하나가 더 숨겨져 있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깊숙이 조금 더 보면 뒤에 감춰진 것도 있고. '묻어둔 편지'라는 제목이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ㅎㅎ 묻어둔 편지가 의미하는 뭔

가 (같은) 그 그림도 수수께끼 같이 그려졌는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 호기심을 자아내게 해서. 그거에 의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도 좀 생기게 되고.

—씨

2:24:44

그런 식의 매력이 이전에 장종완 작가님 작업이나 전시에서도 발견되었었나요? 예전에 전시에서는 어떤 게 또 인상적이셨어요?

친구

2:25:04

예전에는 약간... 저는 되게 잘 그려진 그림이 좋은데. ㅎㅎ 이건 'B급'(감성의) 그림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게 스치는 작가였거든요. 우연히 갔는데 전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아, 인정을 미술계에서 받는 작가인가 보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전시 장소도 이름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아라리오에서 했던 거는 어떤 세태를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극적으로 보여줘서. 그때는 좀 즉각적으로 쉽게 '아,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의 이면을 보여주 그런 게 재밌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겉으로는 카펫 같지만 뒤에 그림이 있고. 그런 점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씨: 네.)

그때도 완벽한 연설을 하기 위한 정치가의 연상이 있고. 앞에 프롬프터가 있고.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 뒤의 많은 노력들?

—씨

2:26:55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친구

2:27:10

특별히. ㅎㅎㅎ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씨

2:27:17

네, 그러다가 또 보러 오실 수도 있겠네요.

친구

2:27:27

네, 근데 그 약간 되게 좀 색도 그렇고... 약간 사이버 종교 같은 느낌도 그렇고... 되게 좀 저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데, 어딘가 사이의 어떤 공간에 있는 작업을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씨

2:27:52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나와 다른 걸 하는 것을 보는 재미'를 말씀하신 거군요.

친구

2:28:01

네, 그리고 되게 진지한 얘기를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다루면서도 환기를 확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진지한 건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데. '다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작가예요.

## 5. 마무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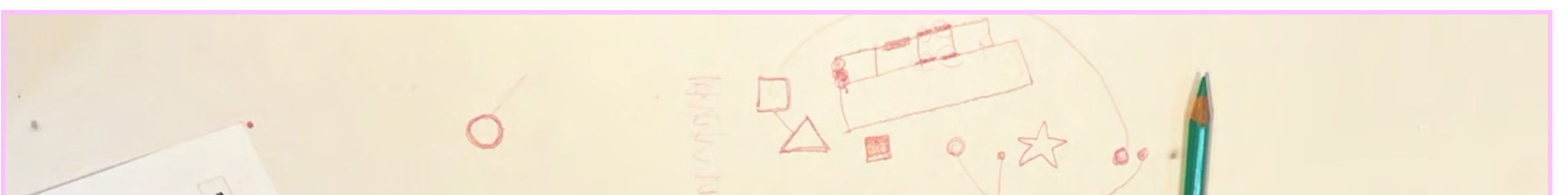
2: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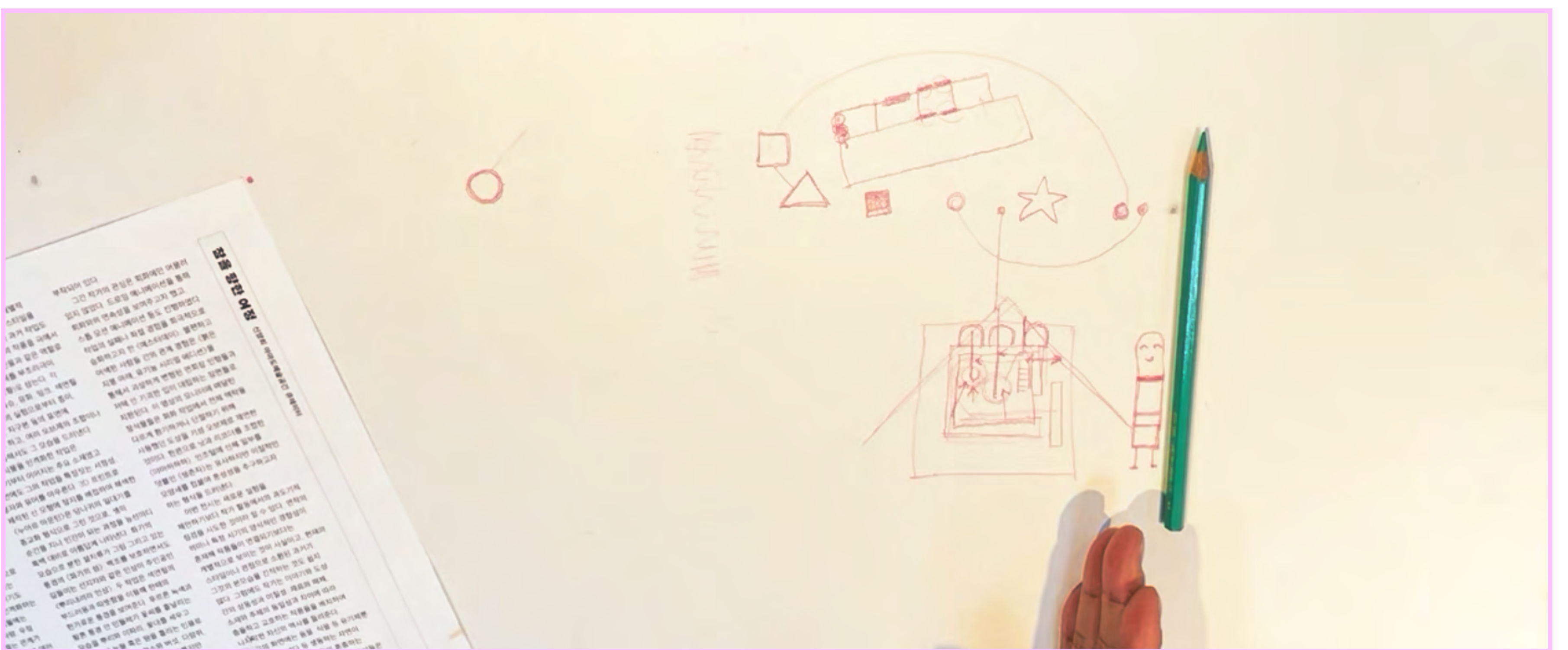
이렇게 이전에 관람하셨던 전시부터 지금 전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뭐가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뭔가 덜 해소가 되었다던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친구

2:28:47

제가 생각을 풀어나가는데 한 이 정도에서 항상 막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한두 줄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한 페이지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좀 항상 있었는데. 많이 해소는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공간도 분절을 하고 그렇게 봐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가, 습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은 전시를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왔는데,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은 일단 한 거니까 그거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글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요. 이게 관찰을 세밀하게 안 해서 그런 건가? 꽤 저는 오랜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도 또 왜 안 될까? 약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더 '동선을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몸이 감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예리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그런 책(격주로, 『관객하는 □』, 2020)\*을 보면 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씨

2:31:25

사실 저도 뭔가 좋은 걸 보고 나면 어딘가 매우 충만한데 뭔가가 해결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친구: 결말을,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고 싶은) 네,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꼭 나눠야 된다고보다는, 진짜로 뭔가 이상하게 뭉쳐 있는 듯한 느낌? ㅎㅎ 네, 그런데 **그걸 언어적으로 풀어내고 싶으신 거군요.**

친구

2:31:56

**네, 그게 몸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언어나... 그게 제가 접근하기가 그나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쉽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씨

2:32:16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힌다고 하실 때 언어화를 위한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신 건 아닌 거죠?

친구

2:32:37

그걸 몰라서 미술사 책도 보고, 미학 책 같은 것도 보고. 근데 미학 책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이 혼자서 좀 불가능하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채우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관찰하는 태도의 문제인 건지. 뭔가 내 쪽에서 ... 제가 전문가의 글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니깐요. ㅎㅎ 그게 뭔지를 계속 찾고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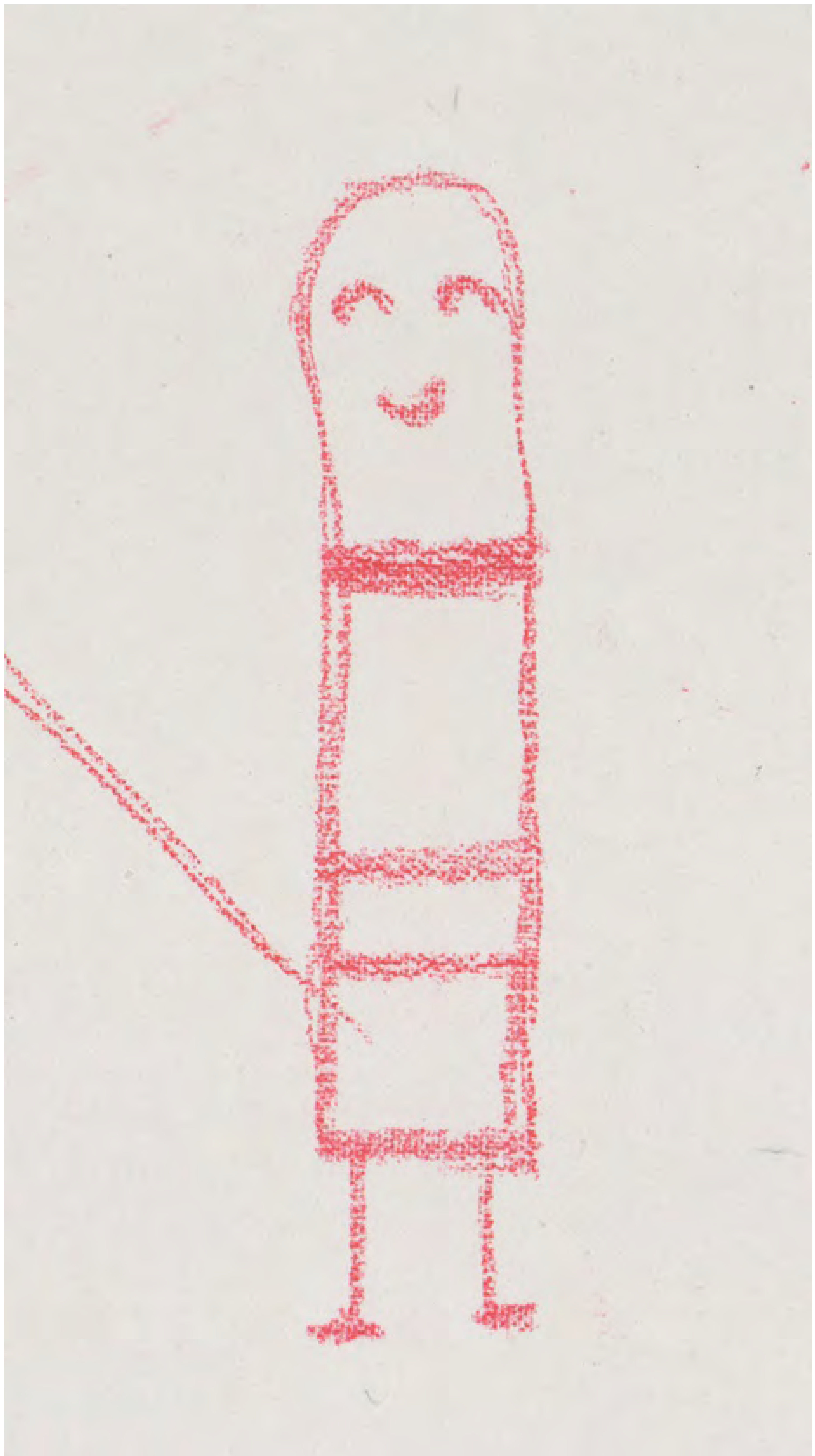
2:3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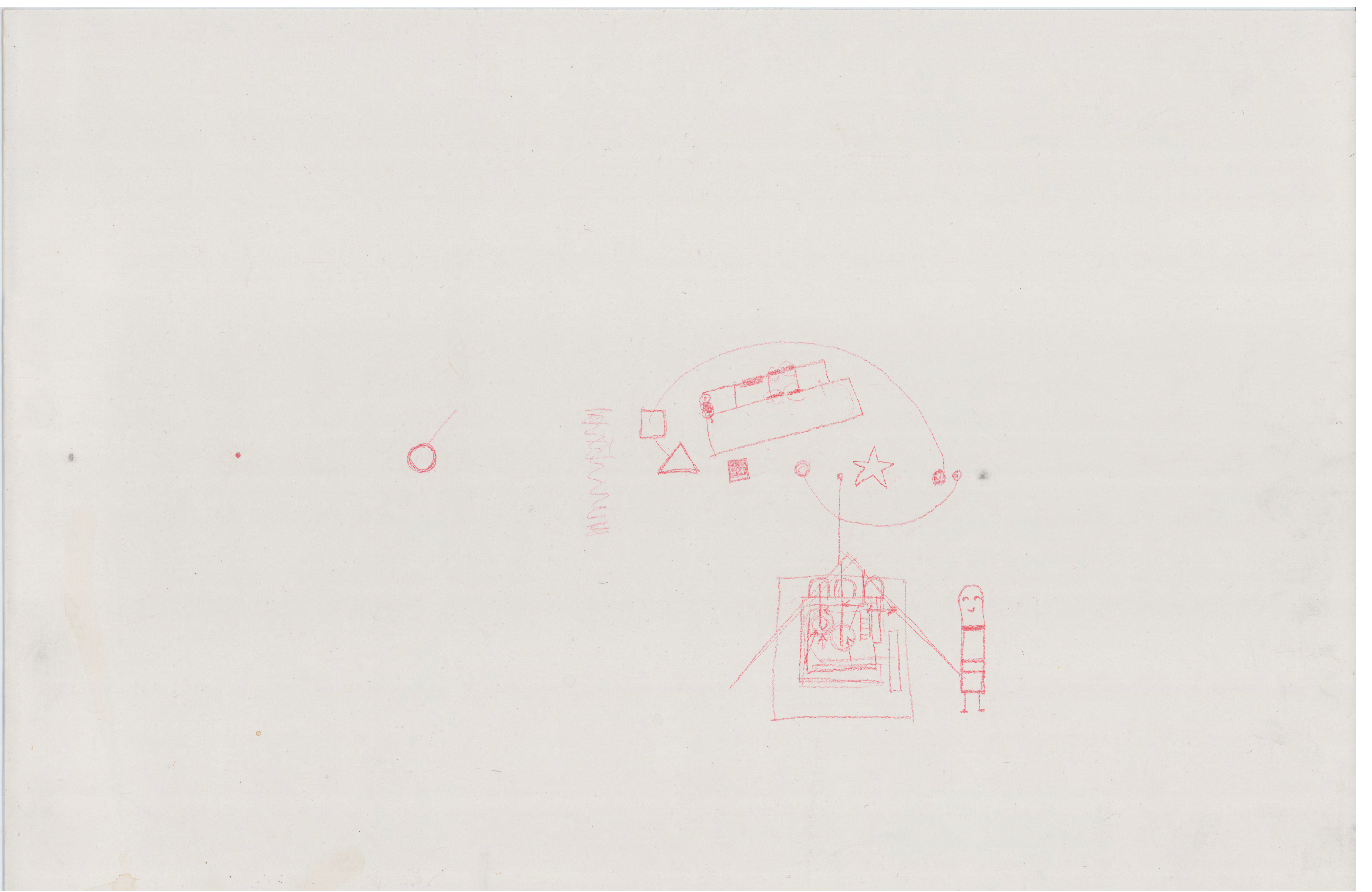
네 그러게요. 이거를(격주로, '제안들', 2021)\*\* 원하시면 드리는 게 좋을까요? ㅎㅎㅎ 이런 걸 만들었던 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작품과 공간에 휩쓸려서 전시를 보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관람자 자신에게 지각되고, 또 관람자가 우연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뭔가를 놓치기도 하고 놓쳤다가 다시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뭔가 풀리지 않았던 곳에서 '아하 모먼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추적해 나가면 내가 얻은 이 '좋은', 하지만 '풀리지 않는 뭉친 감각'을 풀어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ㅎㅎㅎ (친구: 네. ㅎㅎㅎ)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격주로, 『관객하는 □』, 2020 pdf 링크](#)

\*\* ['제안들' pdf 링크](#) (<<우리가 전시를 볼 때 말하는 것들>> 전시 도록 pp53-74 )





격주로x아마도Lab

**'n개의 모닥불' 워크샵 시리즈 - 관람자 심층 인터뷰**  
**장종완 개인전 <<누아르 마운틴>> 관람자 '친구'**

진행자 격주로 —씨(이은재)

참여자 친구

인터뷰 일자 2024년 11월 22일

주최 아마도예술공간

주관 아마도Lab, 격주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시각예술창작주체

©격주로, 아마도Lab

이 문서에 실린 글과 도판의 무단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